

# 국민 권익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2012 vol.27 07+08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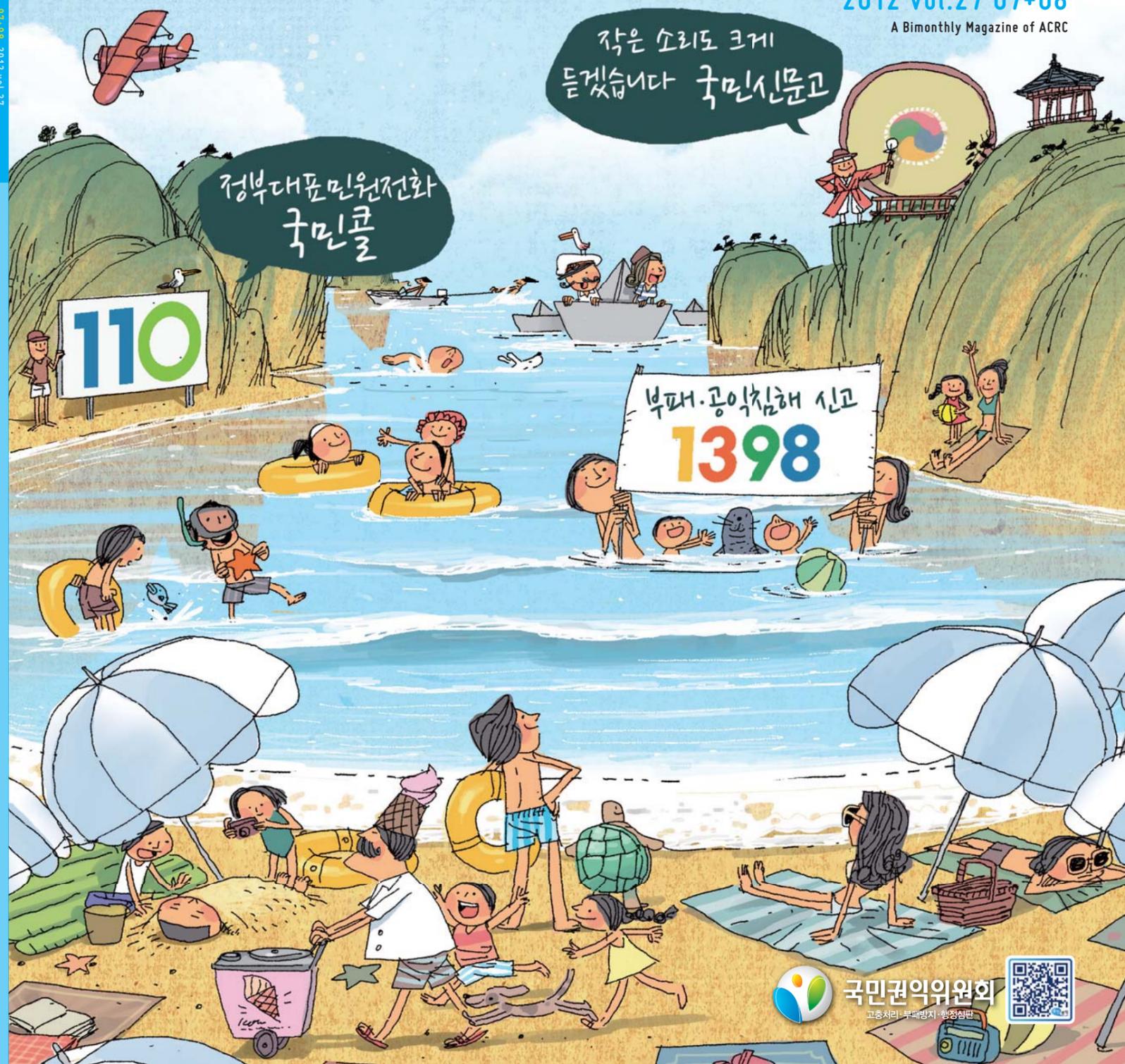
##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범정부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입니다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www.acrc.go.kr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정부대표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공익침해 신고  
1398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 국민의 소중한 권익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동행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빠르고, 간편하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 신속하게 심판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행정심판대상**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 국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 각종 국가면허, 인·허가 관련 처분 / 영업정지·과징금·부담금 부과 처분 / 국가시험의 불합격 처분 / 정보공개 거부 처분 등

**청구방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인터넷(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 가능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인터넷 또는 처분청에서 서식을 교부받아 청구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

**소관사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행정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행정기관(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

# 07+ 08

## 국민권익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2012 vol.27 07+08

발행일 2012년 7월 30일

(격월간, 통권 27호, 비매품)

발행인 김영란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편집인 최학균

주소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군동)

전화 02-360-2761

팩스 02-360-3520

홈페이지 www.acrc.go.kr

블로그 blog.daum.net/loveacrc

트위터 twitter.com/loveacrc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veacrc

기획 | 디자인 | 인쇄 조선뉴스프레스

외부필자의 원고는 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 / 획 / 특 / 집

**02 커버스토리**

부패통제 사각지대 보완  
부정청탁 관행 뿌리 뽑는다

**06 최현복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

“反부패를 넘어 신뢰 구축  
사회적 자본 카울 계기 마련”

**08 이슈 | UN공공행정상 대상 받은 ‘청렴도 측정제도’**

국민 22만명에 ‘부패’ 설문조사  
공공기관 청렴수준 객관적 진단

**12 전문가 제언**

부패의 뿌리를 자르는 ‘부정청탁금지법’



## CONTENTS



### 공 / 감 / 누 / 리

- 14 포커스 | 이동신문고, 경주서 200회 맞아 9년간 누적거리가 '지구 한 바퀴'**
- 18 우리 이렇게 일해요 - 고충처리국 대한민국 대표 옴부즈만... 고질민원도 술술해결**
- 20 조사관의 현장이야기 - 국방보호민원과 문무철 "23년 전 잃어버린 얼굴을 찾아주세요"**
- 22 이렇게 바꿉니다 초빙교사제·軍 자살자 제도개선**
- 24 글로벌 권익위 '민원편의 제공' 다자간 협력 MOU 제언 콜롬비아 공무원에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 소 / 통 / 누 / 리

- 28 권익위가 갑니다 행정심판 전국순회 구술청취 현장**
- 30 현장조정회의 KTX 정읍역사 6개월만에 공사재개**
- 32 국민권익이 만난 사람 KTX 정읍역사 현장조정회의의 참석자들**
- 34 위원장의 편지 우리나라 청렴도도 대상을 받는 그날을 기다리며...**

### 행 / 복 / 누 / 리

- 36 여행 | 제주 사려니숲길과 비자림 울창한 숲이 초록빛 휴식을 권하다**
- 40 시네마 토크 | <다크 나이트 라이즈> 진보의 얼굴을 한 보수... 배트맨, 또 악을 물리치다**
- 42 건강 다이어리 우리 몸의 안보체계 면역력을 키우자**
- 44 역사속 권익 | 격쟁 백성들 억울한 사연을 임금께 직접 호소하다**
- 46 스포츠 한국의 '골드러시' 주인공들**
- 48 컬러&컬처 무더운 한여름밤의 축제**
- 52 i특독 '일상생활의 친구'... SNS로 소통하세요**
- 53 이 한권의 책 | <화산군 리옹상> 한국은 단일민족 아닌 다문화사회!**
- 54 뉴스&피플**
- 56 독자와의 대화**



일러스트·신용호

## 권익위,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연내 국회 제출 목표 부패통제 사각지대 보완 부정청탁 관행 뿌리뽑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법체제로 규제가 어려운 공직 부패행위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연내 국회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권익위가 마련한 부정청탁금지법안은 부패의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공적 의사결정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글·박경아 기자 / 사진·서정리 기자



권익위는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1. ○○공단에서는 전·현직 노조위원장과 고위간부들이 승진, 비정규직 신규채용 등과 연관된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무려 40여 명의 임직원이 비리에 연루됐다.
2. ○○부 고위공직자는 A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으면서도 '대가성이 없는 호의일 뿐이라며 자신에게는 알선수재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3. 구청장 A씨는 관내 건설업자 B씨로 하여금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화랑에서 고가 미술품을 구입하게 했다. 또 B씨에게 아들이 운영하는 컨설팅회사에 경영컨설팅을 의뢰하도록 했다.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흔히 봤음직한 부정청탁 사례들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민원포털인 국민신문고 정책포럼에서 실시한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2월 20일~3월 2일)을 위해 제시된 예들이다.

권익위는 지난 6월 국무회의의 보고에서 공정사회 구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부정청탁금지법'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뒤 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제1차 공개토론회(2011년 9월), 제2차 공개토론회(2012년 2월) 등을 거쳐 권익위 전위원회에서 부정청탁금지법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두 달 동안 권역별 대국민 설명회, 시민단체 토론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국민신문고 정책토론회는 2차 공개토론회와 맞물려 진행됐다.

### 2차례 공개토론회·각계 의견 수렴

1번 사례의 경우 알선청탁과 관련된 범죄가 금품 등 이익의 수수와 결부되어 있어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변호사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금품과 향응 수수가 '단순호의'라고 주장하는 2번 사례의 경우 대가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한 현행 법체계에서 처벌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사례 3과 같이 공적 이익과 공직자의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현행 법체계에서는 명확한 행동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지언정 법적 처벌 기준이 불분명하다.

국민신문고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올리며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을 지지했다.

한 네티즌은 "국가가 바로 서고 국민이 하나가 되려면 국가를 운영하는 공무원이 청렴이 우선이고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국가적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은 "현장 상황에 맞는 공무 관련 규정 및 지침이 필요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 엄한 규정준수 요구 및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으려면 이유 불문하고 공무원의 직무 관련 접대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무조건 형사처벌과 파면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책토론회 참여 네티즌들이 이처럼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강력한 지지의사를 나타낸 것은 아직도 많은 수의 우리 국민이 부정청탁과 이로 인한 부패가 적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국제적으로도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 기존 부패행위에 통제시스템 한계

독일 베를린에 있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1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5.4로 덴마크(9.4), 호주(8.8), 미국(7.1) 등보다 낮았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6.9보다 낮은 수치였다. 또 우리나라는 전체 조사대상 183개국 가운데에서 43위였다. 부패인식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가 해당국에 주재하는 외국 기업인이나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측정하며, 점수는 0~10으로 10에 가까울수록 청렴한 사회다.

국제투명성기구 자료에서 우리나라 부패지수 추이를 보면 1999년 3.8에서 2008년 5.6으로 개선됐으나, 이후 2009년 5.5, 2010년 5.4, 2011년 5.4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권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하여 다양한 부패방지 정책을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는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청렴사회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 왔다. 그러나, 부정청탁 관행 등 현행 관련법이 적용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 왔다. 또한 공직자 자녀의 특혜채용, 변칙적인 계약체결 등 부패행위가 다양화·은밀화·지능화·고도화하면서 기존 부패행위에 대한 통제시스템은 한계를 나타냈다.

이에 권익위는 부패통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연고·온정주의로 인하여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부정청탁을 근절하며, 공직수행 과정에서의 사적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부정청탁금지법안에 담았다. 이 법안은 특히 금지행위 위반 시 제재장치를 구체화함으로써 기존의 권익위법이나 형법, 공직자윤리법 등 부패방지 관련법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 사적 이해관계의 개입여지 원천봉쇄

부정청탁금지법안은 크게 ▲부정청탁의 수수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활동에서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내용의 세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부정청탁의 수수금지 관련 조항들은 공직자의 직무에 대해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일반인의 경우 과태료 ▲공직자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제재하여 공직자에 보다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특정 직무를 처리기한 내에 처리해 달라는 신청이나 요구, 진행상황을 묻는 등 공직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마련된 절차와 방법, 기회를 이용하는 행위, 또는 선출직 공직자·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법령·정책에 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란 점도 명시되어 있다.

금품 등 수수 금지 관련 조항들은 모든 공직자와 그 가족은 직무와 관련해 사업자 등 또는 다른 공직자로부터 금품·향응과 접대, 편의제공 및 이권 개입 등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경우 대가관계가 없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품 등 수수가 직무수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형법상 수뢰죄로 처벌하게 된다.

하지만 이 법안은 통상적인 사고·의례는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도 인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통상적인 사고나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명확한 행동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던 공직활동에

## 부정청탁금지법안 주요 내용

법안 제정 배경	
부패행위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종합적인 통제 및 관리장치 입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통제의 사각지대 보완</li> <li>뿌리 깊은 연고·온정주의와 결부된 청탁관행 차단</li> <li>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종합 관리장치 강구</li> <li>금지행위에 대한 다양한 실효성 확보장치 강구</li> <li>OECD회원국에 걸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도입</li> </ul>
추진 경과	
2011년 6월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청렴 확산방안'으로 입법 필요성 제기
2011년 10월	제1차 공개토론회-입법 필요성 논의
2012년 2월	제2차 공개토론회-법안의 구체적 내용, 제정이유 등 논의
2012년 3월	학계 자문 등을 거쳐 권익위의 법안 마련
2012년 4월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입법정책포럼에서 법안 발제 및 전문가 등 의견 수렴
2012년 4~6월	권역별 대국민 설명회, 시민단체 주최 법안 토론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등 통해 각계각층 수렴
법안 주요 내용	
부정청탁 수수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직자의 직무에 대해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 하는 것을 금지</li> <li>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 하는 것 금지</li> </ul>
금품 등 수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공직자와 그 가족은 직무와 관련해 또는 그 직위·직책이 갖는 영향력을 통해 사업자 등 또는 다른 공직자로부터 금품·향응·접대, 편의제공 및 이권 개입 등 일체의 유형무형 이익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직무수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는 형법상 수뢰죄로 처벌)</li> <li>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범위안의 통상적 사고,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등 예외적인 경우 구체적으로 규정</li> </ul>
공직활동에서의 이해충돌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직자 자신이나 자신의 친족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직무 수행 금지</li> <li>기업인 등 민간인이 고위직·개방직 등 공직에 신규임용된 경우 임용 전 2년 이내 재직했던 사업자등과 관계된 특정직무에 일정기간 참여 금지</li> <li>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공직자의 외부 활동 제한</li> <li>특정직무 상대와의 금전관계, 계약체결, 재산상 거래행위 금지</li> <li>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대한 가족채용, 가족과의 계약체결 제한</li> <li>예산, 공용재산 직위의 사적 사용과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li> </ul>
법안의 적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모든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li> <li>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민간인</li> <li>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li> </ul>	

서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개념과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먼저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이익과 연고가 개입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실체적 이해충돌) ▲저해될 우려가 있거나(잠재적 이해충돌) ▲저해된다고 보일 수 있는(외견상 이해충돌)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법안은 공직자가 특정직무 수행과정에서 이러한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해충돌이나 부패 우려가 있는 공직자의 외부활동도 제한하고 있다.

기업인 등 민간인이 고위직·개방직 등 공직에 새로 임용된 경우에도 임용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사업자 등과 관계된 특정직무에 대해 일정기간 참여를 금지하여 정책결정이나 인허가 등에 있어서 임용 전 재직했던 특정단체 또는 기업 등에 특혜를 제공할 가능성을 사전 차단했다.

특히 공직자에 대해 특정직무 관련자와의 금전차용·대부, 물품거래·용역 과 같은 계약체결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매매나 인차 등 재산상 거래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또 고위공직자나 인사담당 공직자는 자신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가족을 특별채용할 수 없다.

## “스폰서·떡값 수수 등 관행 개선될 것”

부정청탁금지법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이 법안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 신문 기사를 통해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는 뇌물이 아니기 때문에 고위층의 스폰서가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공직자에게 법망을 피해 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장기보험’의 하나로 인식하는 풍조도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권익위가 부정청탁금지법을 올해 안에 입법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정청탁금지법이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금지와 허용의 기준을 더욱 정교하게 하고, 집행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현행 형법의 수뢰죄 규정으로는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하기가 어려웠으나 이번 법안이 바로 그런 한계를 보완한다. 공직자의 스폰서, 떡값 수수 같은 고질적인 관행이 개선되고, 비위공직자가 처벌이 안되는 상황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 '부정청탁금지법' 특강에 바쁜 최현복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反부패를 넘어 신뢰 구축 사회적 자본 키울 계기 마련”

국민권익위가 추진해 온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법안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같은 정부입법 절차를 조만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최현복 부위원장을 만났다.

글·서철민 기자 / 사진·조준우 기자

최현복 권익위 부위원장은 요즘 누구보다 바쁘다. '부정청탁금지법안'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밀려드는 '청렴 특강' 요청으로 전국을 누비고 있다. 그는 "최근 들어 평균 1,2주에 한 번씩은 나간 것 같다"며 "청렴한 사회는 제도나 법을 통해 조성되기도 하지만 윤리성이나 도덕성 등 인간적 가치의 변화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어디든 반갑게 달려간다"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대구 지역에서 활동해 온 시민운동가 출신이다. 그는 대구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반(反)부패 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권익위로 통합되기 전 청렴위 민간정책자문위원과 고충위 옴부즈만포럼회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부정청탁금지법안'은 그가 시민운동을 할 때부터 제정을 촉구했던 법안이다.

## 시민운동을 하던 시절 권익위에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008년 권익위로 통합되면서 단절된 중장기 목표와 비전을 하루빨리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부패방지를 위한 1차 기본계획이 10



년을 채우지 못한 채 종료된 데다 평가마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지요. 그 계획을 우리가 들어와 '비전 2020'이라는 이름으로 수립했습니다. 담보돼 있던 평가도 완료해 부패방지 관련 정책이라든가 제도의 연결고리를 마련했지요. 아울러 공직사회 중심으로 작동되던 청렴문화를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문화 확산은 신뢰사회를 구축하는 것인 만큼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부패방지는 정치와 이념은 물론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을 뛰어넘는 어젠다입니다."

## 부정청탁금지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현행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며, 공직자가 공직활동 중에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가성이 없는 경우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지요. 이번 법안은 권익위법이나 형법, 공직자윤리법 등 기존 부패방지 관련법이 갖는 한계를 보완한다는 것과 부패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법제화함으로써 부패발생을 예방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외국에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제정된 경우가 있습니까.

"부정청탁의 경우 미국의 일부 주(텍사스·뉴햄프셔·몬태나·메인 등)가 개별주의 형법에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텍사스 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몬태나 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지요. 금품수수의 경우 독일은 1997년 형법 개정을 통해, 미국은 1962년 '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여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프랑스에서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제정을 추진 중에 있고요."

## 국가경쟁력이나 국가브랜드 조사에서 한국은 부패지수 때문에 낮은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이번 법안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청렴도(CPI)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4점으로, 조사대상 183개국 중 43위에 그쳤습니다. 이는 세계 15위 국가경제 규모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수준이죠. 이처럼 낮은 국가청렴도는 대외신인도와 직결돼 지속가능한 국

가 발전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한 권익위의 인식도 조사에서도 일반 국민의 56.7%가 부패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현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의욕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내·외부로부터의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번 법안 제정을 통해 부정청탁, 금품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에 따라 부패문제에 대한 인식도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 법안에 대해 공무원이나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작년 6월 국무회의에서 입법 필요성에 대해 보고한 후 법안 준비 작업과 함께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한 여러 절차를 거쳤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공개토론회와 입법정책포럼, 대국민 설명회, 시민단체 토론회, 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지요. 그 결과 시민단체, 학계의 많은 분이 입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법안의 성공적인 제정을 위해 많은 지지를 보내 주고 있고, 법무부·행정안전부 등 대부분의 부처에서도 제정안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입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최현복 부위원장은 청렴 특강을 통해 "단순히 부패하지 말라고 강요하기보다 신뢰 구축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키우자고 강조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물질·인적 자본을 통해 고도의 압축성장을 했는데, 그 과정에 파생된 사회적 갈등과 병리 현상은 신뢰 구축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신뢰는 곧 사회적 자본"이라며 "사회적 자본이 취약하면 경제적으로 성장해도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도 측정 제도로 2012 유엔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청렴도 측정 제도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6월 25일 유엔본부 제너럴 어셈블리홀에서 열린 2012 유엔공공행정 정상 시상식 무대에 오른 각국 대표들.

## UN공공행정상 대상 받은 ‘청렴도 측정제도’

# 국민 22만명에 ‘부패’ 설문조사 공공기관 청렴수준 객관적 진단

“청렴한 사람은 청렴을 편안히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청렴을 이롭게 여긴다.” 오늘날까지 공직자들의 지침서가 되고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의 한 대목이다. 청렴은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공직자의 덕목 중 하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펼쳐 온 청렴한 공직사회를 향한 노력은 최근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 수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글 박경아 기자

## 부패예방 과학적 평가 세계가 인정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 제도가 지난 6월 25일 뉴욕 유엔본부 제너럴 어셈블리홀에서 열린 ‘제30회 유엔 공공행정의 날 기념식’에서 ‘공공행정의 부패방지 및 척결’에 기여한 공로로 대상을 수상,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유엔 공공행정상은 유엔이 공공행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2000년 제정, 2003년부터 매년 6월 25일 ‘공공행정의 날’에 세계의 우수 공공정책과 제도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 5개 지역(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유럽·북미, 남미·카리브, 서남아시아)으로 구분하여 ▲정책결정 참여 ▲공공행정 부패 ▲전달체계 개선 ▲정부지식관리 향상 ▲성(性) 인지 제고 등 5개 부문에 걸쳐 시상한다.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 제도는 20만명이 넘는 민원인, 기업인,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공공기관의 부패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관의 청렴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제도로서, 2002년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이후 2011년 684개 기관으로 확대되어 한국 정부의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유엔 공공행정상 수상은 과학적 평가를 통해 취약 분야를 개선하고 부패를 예방해 나가는 ‘청렴도 측정’의 제도적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공인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시민참여와 부패예방을 중시하는 경향이 대두되면서, 22만여 명의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공표됨으로써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인 청렴도 개선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청렴도 측정’의 혁신적 시도에 유엔의 평가위원들이 주목한 것으로 분석된다.

권익위는 지난해 ‘정부지식관리 향상’ 부문에서 ‘국민신문고 제도’로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 ‘공공행정의 부패방지 및 척결’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해 다시 한번 국제 무대에 그 이름을 올렸다.

공무원, 정치인 등 국가나 사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공인(公人)’이다. 지난 4월 <교수신문>이 전국의 대학교수 550명에게 ‘우리 시대 공인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들은 5개 분야(기업인, 교수, 고위공무원, 법조인, 정치인)의 공인에 대해 각각 필요한 덕목을 각각 꼽았는데,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덕목으로는 ‘청렴’을 꼽은 응답자가 48.4%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책임감’(22.2%), ‘정직’(13.6%), ‘봉사’(10.2%) 순이었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목민심서>를 통해 관리의 청렴을 강조했지만, 시대가 변해도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최고 덕목은 ‘청백리’인 것이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청백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한층 수준 높은 청렴한 사회를 지향하는 제도가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이다.

특히 유엔 공공행정상 제정 10주년 기념식을 겸한 시상식에서는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측정' 제도를 소개하는 비디오가 상영돼 한국의 부패예방 시스템의 우수성과 역량을 세계에 알렸다. 향후 '청렴도 측정' 제도는 유엔이 발간하는 책자에 수록되어 전 세계 정책결정자들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 올해도 7월부터 6개월간 청렴도 측정

이번 유엔 공공행정상 수상 이후 권익위는 우리나라 대외부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지난 7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콜롬비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콜롬비아 공직감찰원, 국가감사원, 국가검찰청 등 콜롬비아 반부패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15명이 참가했다.

연수에 참가한 콜롬비아 공무원들은 부패예방 정책과 사건처리에 대한 강의와 토론, 감사원·관세청 등 관계기관 방문 등을 통해 한국의 전반적인 반부패 정책에 대해 학습하고, 콜롬비아 주요 부패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익위는 이전엔 2006년 인도네시아와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반부패 정책을 전수한 이래 태국, 베트남, 몽골 등 여러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을 전파해 왔다. 이번 콜롬비아 반부패 역량강화 초청연수를 계기로 권익위는 아시아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반부패 역량강화 교육대상을 아프리카·중남미 등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계옥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콜롬비아 공무원들의 반부패 연수에서 환송사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험을 거치며 부패문제를 극복 해나가고 있는 한국의 경험이 콜롬비아에 긍정적인 교훈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부정부패 추방이 개발도상국의 우선 과제인 만큼 반부패에 대한 기술전파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앞으로 초청연수 대상국가를 확대해 더 많은 국

가에 교육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청렴도 측정을 실시한다. 권익위가 6월 28일 확정 발표한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계획'에 따르면, 특히 올해부터는 전문가·업무관계자 등 정책고객들도 평가자로 참여시킬 예정이다. 또 광역자치단체를 평가할 때에는 주민들도 평가자에 포함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올해 청렴도 측정대상 기관은 모두 665개로, 전년(685개)에 비해 다소 줄었다. 최근 2년 연속 종합청렴도가 양호하고 외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 징계자가 없는 39개 기관을 측정에서 면제했고, 연구원·의료원 등은 격년 측정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 '부패사건 언론노출지수' 새롭게 반영

올해 실시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은 ▲국민이 부패로 느끼는 새로운 공직부패 유형들을 청렴도 측정항목에 포함시켰고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에는 부패사건이 언론에 노출된 정도를 나타내는 '부패사건 언론노출지수'를 새롭게 반영하며 ▲36개 국·공립대학도 대학 업무에 특화된 평가로 청렴도를 측정하게 됐다는 점에서 새롭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품·향응 수수라는 전형적인 부패 이외에도 부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청렴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권익위의 대학생 청렴홍보단이 6월 15일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청렴한 세상' 캠페인을 펼치며 청렴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권익위 김상식 기획조정실장(가운데)이 유엔공공행정상 시상식에서 '청렴도 측정이 공공행정의 부패방지 및 척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한 청탁의 수수,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사의 추구, 권한 남용, 퇴직공직자의 불법로비 등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새로운 공직부패들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항목에 추가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청렴도 측정제도가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부패개선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부패행위 징계자 감점제'를 적용해 부패행위 공직자가 많고 부패금액이 클수록 청렴도를 감점하고 있는 것에서 확대해 공직유관단체 평가에 '부패사건 언론노출지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부패사건의 언론노출 정도가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면 부패사건에 연루된 기관의 청렴도가 높게 나오는 등 구체적인 부패실태와 청렴도 점수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현상을 시정할 수 있고, 일반국민들의 눈높이에 보다 상응

하는 청렴도 측정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국민들의 부패인식 개선이 더딘 교육 분야의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36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특화된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교수들의 연구활동이나 예산집행 등에 대한 별도의 설문항목을 개발해 측정할 예정이다. 대학에 대한 청렴도 평가 중 내부 평가에는 교수와 조교, 교직원, 박사과정 학생 등이 참여하고, 외부 평가에는 해당 대학과 구매·용역·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방이 참여한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는 전문가·업무관계자 등 정책고객 평가를 청렴도 점수에 반영하게 되며, 지방청 및 실·국 단위 평가를 확대하는 등 청렴도 측정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도 이루어졌다.

### 지자체 측정엔 지역주민·학부모 참여

지난해까지는 주요 대인업무 중심으로 청렴도 측정이 실시됐으나, 의사결정·정책 등 업무전반으로 측정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올해부터 전문가·여론선도층·업무관계자 등 정책고객들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을 평가할 때는 지역주민과 학부모들도 평가자에 포함시킬 계획이어서 다양한 정책고객들이 참여하면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의 청렴도 측정에는 실제 부패사건 발생이 빈발했던 주요 인허가 업무를 평가 분야에 추가하고, 대형 부패사건이 자주 발생했던 금융분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평가분야를 발굴해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단위에 있어서는 지난해 국제청, 검찰청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한 지방청 및 실·국단위 평가를 광역자치단체 등 30여개 기관으로 확대 실시한다. 또 각 기관에 하위조직별 청렴도 점수를 제공하여 일선 행정현장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남기  
조선일보 논설위원

우리 사회에서 부패가 끊이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청탁 문화다. 공직 사회든 민간 영역이든 아는 사람, 즉 연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일 처리는 크게 달라진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법 규정상 될 수 없는 일도 될 수 있고 아는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도 잘 되지 않는 경우를 누구나 경험한다. 이는 특히 정부 업무와 관련된 일에서 심하다. 국민권의 위원회가 작년 8월 국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 대다수(84.9%)는 “공직사회의 알선·청탁이 심하다”고 답변했고, 국민(22.2%)과 공직자(36.5%) 모두 알선·청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학연·지연 등 연고주의적 사회 풍토’를 꼽았다.

부실 저축은행 간부들이 은행 영업 정지를 막으려고 금감원·국세청·감사원은 물론 정치인들에게까

족을 찾아 대이동을 하는 사회가 우리나라다. 전국민이 혈연·지연·학연의 연고(緣故) 의식, ‘우리끼리 문화’에 매년 두 차례씩 머리부터 발끝까지 폭 담갔다가 오는 셈이다. 이런 사회에서 법 하나 만든다고 청탁 문화, 연줄 문화가 금방 사라지겠는가.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이 더 필요하다. 법으로, 강제로 부정한 청탁을 하면 불이익을 받고 될 일도 안 된다는 문화를 조금씩이라도 만들어 가면 서서히 달라질 것이다. 언젠가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청탁’이라는 말을 지금처럼 쉽게 입 밖에 꺼내기가 어려운 사회가 올 수 있을 것이다.

‘처벌이 만능(萬能)이나’ 하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처벌이 만능은 아니다. 엄히 처벌한다고 사회 병폐가 단번에 사라질 것 같으면 이 세상은 벌써

## 부패의 뿌리를 자르는 ‘부정청탁금지법’

지 청탁을 하면서 돈을 뿌려 관련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줄줄이 쇄고랑을 찼다. 청탁 문화와 그로 인한 부패가 얼마나 뿌리 깊고 넓게 퍼져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의 하나다.

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법안’, 약칭 ‘부정청탁금지법’은 바로 부패의 뿌리인 청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그 사실을 신고하게 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소속 기관장은 부정한 청탁을 한 사람을 고발하도록 했다. 공직자가 직무 권한 범위 내의 사람으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받을 때 형사처벌하는 내용도 있다.

법을 만든다고 우리의 뿌리 깊은 청탁 문화가 쉽게 없어질 리는 없다. 해마다 추석과 설날이면 갓난 아기에서부터 팔순 노인까지 수천만 명이 고향과 가

친국 근처에 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탁을 주고받는 사람을 처벌하면 그러지 않는 경우보다 청탁이 줄어들 가능성은 훨씬 크다. 형법에 살인죄가 있다고 해서 살인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살인죄가 없다면 사회가 어떤 상태가 될지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다. 지금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으면 뇌물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청탁금지법은 청탁을 주고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어렵게 함으로써 뇌물죄로는 다스릴 수 없는 행위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권익위가 준비한 부정청탁금지법안에는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다. 권익위는 보완해야 할 점은 보완해 가능한 한 최선의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여야 정당은 이 법의 중요성을 깊이 살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일러스트-이철민



## 공 / 감 / 누 / 리

포커스 이동신문고, 경주서 200회 맞아... 9년간 누적거리가 '지구 한 바퀴'

우리 이렇게 일해요 - 고충처리국 대한민국 대표 옴부즈만... 고질민원도 술술해결

조사관의 현장이야기 - 국방보훈민원과 문무철 "23년 전 잃어버린 얼굴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바깥입니다 교사초빙 관련 비리 싹을 없앤다

글로벌 권익위 '민원편의 제공' 다자간 협력 MOU 제안

콜롬비아 공무원에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 국민권익위의 이동신문고가 경북 경주에서 200회를 맞았다. 박재영 부위원장이 권익위 조사관들과 함께 신문고를 경주시에 기증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관들이 경주시민들로부터 각종 민원을 듣고 있다.

# 이동신문고, 경주서 200회 맞아 9년간 누적거리가 ‘지구 한 바퀴’

제기된 지역민원 모두 7400건  
현장 합의로 1087건 해결



그동안 이동신문고에 참여했던 권익위 조사관만 1606명에 이른다. 이동신문고가 열릴 때마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과 10여 명의 전문조사관이 동행했다. 또 매달 3~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방문했는데, 이들이 전국을 다닌 누적거리가 지구 한 바퀴가 넘는 5만2100km에 달했다. 이동신문고 상담장에서 제기된 7400건의 지역민원 중 1087건이 합의 해결됐다.

글 김태완 기자 / 사진 조준우 기자

## 국민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동신문고 상담장에서 제기된 7400건의 지역민원을 처리했고, 합의를 통해 해결한 민원도 1000건이 넘는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현장에서 합의해결 건수가 1087건, 민원접수한 건수가 1344건, 상담을 안내한 건수가 4969건에 이르렀다고 한다. 박재영 부위원장의 말이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9년 동안 한 달에 3~4회씩 전국을 찾아다닌 것이 경주에서 200회를 맞았다. 이동신문고는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들어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 주고, 정부와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중심, 그리고 현장중심 민원상담 제도이자 국민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동신문고는 단순히 주민의 억울함이나 불편부당함을 달래 주는 데 그치지 않았다. 실타래처럼 엉킨 지역의 미해결 장기과제를 해결하거나 풀 수 있는 접점을 찾아 주었다.

박성수 이동신문고팀장은 “2010년부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간담회,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수렴된 1188건의 정책건의와 제도개선 방안 등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중앙부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재영 부위원장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안고 있는 난제를 풀어 갈등을 해소한 데에 보람

을 느낀다”며 “여러 현장조사와 관계기관들과의 협의, 중재 과정을 거쳐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었다”고 강조했다.

지난(至難)한 문제였던 전북 익산의 ‘왕궁축산단지 오염(2010년 1월), 경기 연천의 한센인 무허가 염색단지 양성화(2010년 6월), 전남 강진만 주민 1300여명의 ‘어업 피해보상 요구’(2011년 7월), 경남 고성군민의 40년 숙원인 ‘대대리 포(砲)사격장 이전’(2011년 9월), 강원도 양구군 ‘봉화산 태풍사격장 주민피해’(지난 4월) 등이 그동안 해결한 대표적인 민원사례다.

## 경주선 과장급 이상 조사관 나서

이날 권익위는 200회째 이동신문고를 기념해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직접 조사관으로 나섰다. 윤성용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 박성수 이동신문고팀장, 정혜영 도시수자원민원과장, 정상석 행정문화교육민원과장 등이 민원상담 현장을 지휘하며 ‘울리는 북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윤성용 과장은 “권익위의 ‘합의조정은 사법부 판결과 같은 효과가 있어 확실한 해결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권익위 직원은 쓴 커피 한 잔도 안 얻어 마신다. 식사는 물론이다. 민원인이 고맙다며 농산물을 권익위로 보내 오지만 양해를 구하고 대부분 돌려보냈다”고 했다.

박성수 이동신문고팀장과 민원조사기획과 이경

북 주무관은 “권익위는 2011년 한 해 동안 전국 46개 현장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총 1238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는데, 이 중 약 20%(244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정상석 과장은 “대화로 쉽게 풀 수 있는 민원도 부처간 떠넘기기로 갈등을 빚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동신문고 상담민원은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관계기관을 직접 참여시켜 현장에서 바로 해결한다”고 했고, 정혜영 과장은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시켜 현장 확인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원접수가 많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신원(伸冤)을 해 주느냐가 관건이다. 윤성용 과장은 “이동신문고의 품질이 높아지고 주민의 만족도가 보장돼야 의미가 있다. 조사관의 전문성과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경주지역 이동신문고 현장에서 많은 민원인과 만날 수 있었다. 경주시 건천읍 송선1리에 사는 손정학씨와 이종백씨는 자신의 마을에 건립 중인 분노·쓰레기 처리시설 때문에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손·이씨는 “닭의 몸통에다 꿩의 머리를 붙인 격으로 경주시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 권익위가 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했다.

안강읍 산대4리에 사는 주민 5명도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은 “28번 국도가 마을 앞을 지나는데 지금까지 1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다친 사람은 부지기수”라며 “위험천만한 도로지만 안전시설이 없어 40년째 불안에 떨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민 강영진씨는 “차가 집으로 뛰어들 적도 있고,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잠도 설친다”고 한숨을 쉬었다.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권익위가 해결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주 시래동 공설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이미정씨는 “동사무소 직원이 권익위의 이동신문고가

2012년 하반기 이동신문고 운영계획 (필호 안 숫자는 날짜)

월	권역	지방자치단체
9	전북	강릉(12) 동해(13) 삼척(14)
10	강원	고창(17) 정읍(18) 부안(19)
11	충남	공주(14) 천안(15) 아산(16)
12	경남	김해(6) 창원(7)

경주에서 열린다는 알짜 정보를 알려줘 찾아왔다”며 “적어도 권익위만은 서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경주시에  
높이 1m  
신문고 기증**

- 국민권익위는 이날 이동신문고 200회를 기념해 경주시에 가로 60cm, 세로 50cm, 높이 1m 크기의 신문고를 경주시에 기증했다. 이 신문고는 중요무형문화재 ‘북메우기’(가죽을 이용하여 북

▼ 국민권익위는 2011년 한 해 동안 이동신문고를 통해 1238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다. 그러나 이동신문고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선 권익위 조사관의 전문성과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을 만드는 일) 전수자 윤종국씨가 만들었다고 한다. 박재영 부위원장이 북채를 최양식 경주시장에게 직접 건넸고, 첫 번째 민원인인 최하영씨가 다시 북채를 받아 북을 등등 올렸다.

경주 외동읍에 사는 최씨의 민원은 아주 골치아픈 것이었다. 경주 외동읍 모화리와 울산시 울주군 두산리 사이 경계지역에 신라시대 석축산성인 ‘관문성’(사적 제48호)이 있다.

울산시와 경계를 이룬 관문성 주변은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나 경주 주변만 개발이 불허되었다는 것이었다. 최씨는 “울산쪽 관문성 인근은 개발이 원활한데, 경주 주변은 문화재 보존의 이유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게다가 경주쪽 관문성 주변에 부도난 방직공장 건물이 17년째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으나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문화재의 역사, 학술, 경관적 가

치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현장조사와 문화재청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참석한 문화재청 관계자도 “신중히 검토해 처리하겠다”며 해결 가능성에 힘을 실어 주었다.

**고충, 사전에  
파악해  
현장해결 높일  
계획**

- 또 경주시 천북면에 건설 중인 경주CC를 둘러싸고 사업자와 경주 이씨 문중 간의 갈등이 이날 권익위의 중재로 해결됐다. 이 민원은 경주 이씨 문중의 후손 60명이 공동소유한 경주시 천북면 6만1488㎡의 토지가 2009년 7월 민간 사업시행자의 골프장 건설사업에 편입되면서 비롯됐다. 그러나 토지보상을 두고 2년 동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다 끝내 사업구역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경주 이씨 문중 후손들은 “골프장이 건설되면서 문중 땅이 섬처럼 고립되고 진·출입로마저 단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박재영 부위원장과 최 시장 등은 문중 대표들과 골프장 사업시행자를 모두 불러 문중 땅을 사업자가 매수하도록 중재했다. 박재영 부위원장은 “감정평가업자를 통해 평가된 금액으로 계약하되 경주시는 평가금액 산정과 계약체결을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지도·감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공장용지(영천 채신동 영천첨단산업단지)가 포함됐다는 불거졌던 아세아철강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갈등도 이날 이동신문고를 통해 현장에서 해결했다.

박재영 부위원장은 “향후 전문성을 갖춘 우수 조사관을 중심으로 상담받을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보강하겠다”며 “이동신문고 운영지역의 고충민원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해 현장협의 해결을 보다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대한민국 대표 옴부즈만 고질민원도 술술해결

## 베테랑 조사관-전문위원-과장 '사전검토제' 도입...민원처리 14일로 짧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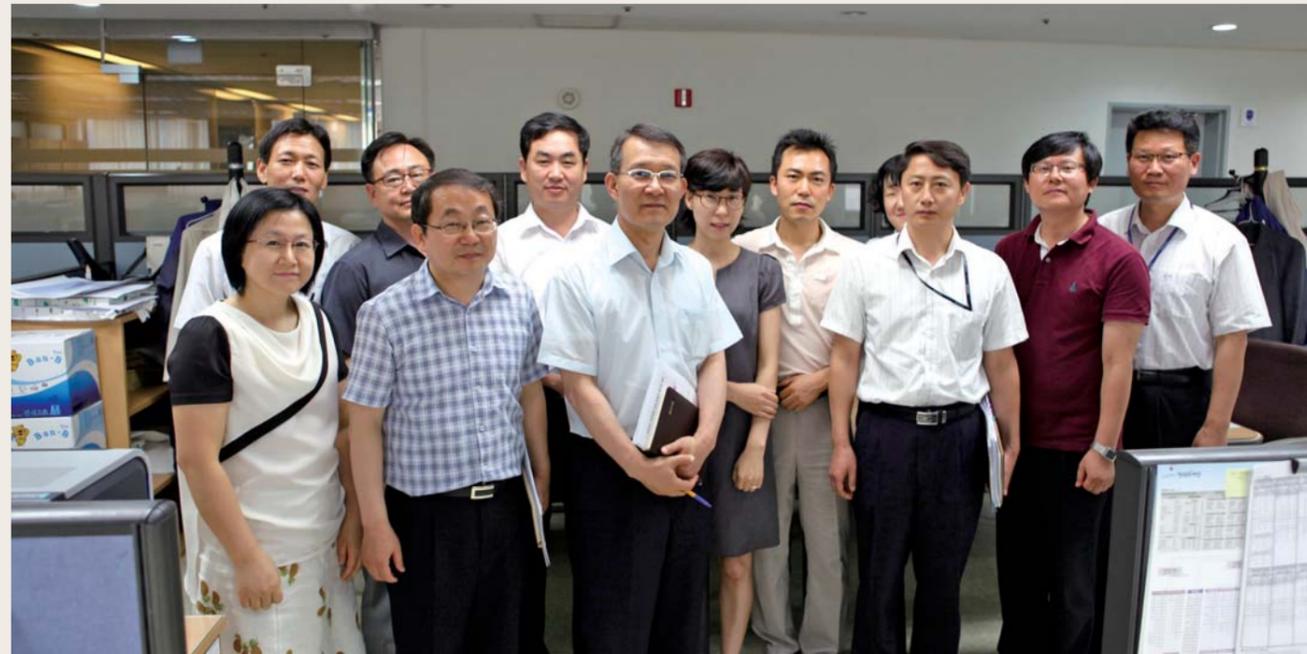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는 '팔색조'다. 어떤 이에게는 불만을 들어 주는 곳인 한편, 다른 이에게는 부패를 몰아내 주는 곳이다. 불합리한 행정절차를 바로잡는 제도개혁 기관으로 보는 이도 있다. 국민권익위 내부에서도 시선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국민권익위를 '대한민국의 대표 옴부즈만(민원해결사)'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곳이 고충처리국이다.

클라 사진·남창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소통 포털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은 연간 100만 건이다. 여기에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와 각급 정부기관 상담창구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을 합하면 연간 총 300만 건의 민원이 정부에 접수된다. 이 중 권익위에서 처리하는 2차 민원이 연평균 3만2000건이다.

### 10개과에 160명의 조사관 근무

이러한 민원처리 업무를 맡은 곳이 권익위의 고충처리국이다. 반복되는 고질민원, 해결이 어려운 악성민원을 주로 다루다 보니 고충처리국은 철저한 분업과 전문화 원칙에 따라 구성됐다.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민원조사기획과(이하 조사기획과)와 행정문화교육, 국



고충처리국에서는 반복되는 고질민원, 해결이 어려운 악성민원을 주로 다룬다.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민원조사기획과는 한정된 시간에 더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방보훈, 경찰, 복지노동, 재정세무,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의 9개 분야별 민원과 등 총 10개 과에 160명의 조사관이 근무한다.

특히 조사기획과를 따로 둔 이유는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박세기 조사기획과장은 "민원과 관련한 각종 통계조사, 처리에 대한 평가, 조사관 교육 및 관리, 제도개혁안 제시까지 해치운다. 다른 부서 서너곳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조사기획과에서는 직접 민원을 해결하지는 않지만, 한정된 시간에 더욱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그중 하나가 '사전검토제'다.

사전검토제는 민원을 조사관에 배정하기 전에 베테랑 조사관·전문위원·과장이 기존 사례와 비교 검토해 민원처리 방향을 조사관에게 자문하는 제도다. 박 과장은 "이전까지는 배정받은 민원을 조사관에게 무작위로 돌렸다. 그러다 보니 복잡한 민원이 신참 조사관에게 배정되는 등 조사관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생겼다"고 말했다.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권익위의 민원처리 기한은 60일이지만 고충처리국 실제 민원처리 기간은 더 짧다. 2010년까지 평균 처리기간은 22일. 그러나 지난해 5월 사전검토제를 본격 시행한 뒤 17일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14일로 3일이 더 줄었다. 민원해결을 나타내는 지표인 인용률도 지난해 15%에서 올해 21%로 해마다 높아졌다.

고충처리국에서는 사회다변화에 따른 민원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조사기획과 김성훈 사무관은 "최근에는 여러 부서 협력이 필요한 사회갈등 민원이 늘고 있다. 해당 민원이 접수되면 부서별 조사관을 차출해 태스크 포스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 이동신문고팀 '민원 찾아 삼천리' 이동신문고 운영

고충처리국 직원들이 앉아서 민원인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생활에 쫓겨 인터넷과 콜센터마저도 사용하기가 어려운 민원인을 찾아 현장으로 나간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전문조사관 10여 명이 한 달에 네 번씩 2박3일 일정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이동

신문고'다. 권익위의 김영란 위원장도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한 달에 한 번은 꼭 참가한다.

2003년 충북 청주지역을 시작으로 올해 6월까지 211개 지역에서 7400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그중 1087건은 현장에서 해결하고, 1344건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권익위에서 처리했다. 올해는 50곳 예정에 이미 29곳을 다녀왔다. 생활이 바빠 민원접수가 쉽지 않은 소상공인, 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이 많은 14곳도 포함됐다.

이동신문고팀 박성수 팀장은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서조차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몇 년간 골치거리였던 민원을 해결하고 나올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 고충민원 특별조사팀 반복되는 고질민원 50% 이상 해결

민원인들 중에는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도출된 결과에 불응해 같은 민원을 반복 제기하거나 조사관을 위협해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심심찮다. 지난해 7월 권익위에서 베테랑 조사관 3명을 선발해 '고충민원 특별조사팀'을 설치한 이유다.

이곳에서는 같은 민원을 5회 이상 반복 제기해 의도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 6개항에 이르는 기준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고질민원을 전담한다.

특별조사팀 장태동 팀장은 "조사팀은 원점 재조사, 민원인 입회하에 현장중심 조사, 끝장 토론의 원칙으로 움직인다"고 말했다. 민원인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처리과정에서 빠뜨린 것은 없는지 처음부터 다시 조사한다. 그리고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이해관계자가 모두 현장에 모여 문제상황을 정확히 진단한다.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몇 시간이고 설명과 토론을 거쳐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결론을 낸다. 또 조사를 일방적으로 종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약 12개월 동안 접수된 41건 중 21건을 해결했다. 해결률 51%. 수년간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을 괴롭힌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성과라는 평가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들은 전국에서 밤낮없이 국민의 고충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은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겪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23년 전 잃어버린 얼굴을 찾아주세요”

## 군시절 구타로 얼굴에 흉터... 국가유공자 지정 후 국비로 성형수술 가능

“감사합니다. 오늘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았어요. 제일 먼저 조사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민원인 D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다. 군복무 중 당한 구타로 고통 받던 D씨가 우리 위원회의 시정 권고로 국가유공자가 되었다는 소식이다. 기쁘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D씨는 특전사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내무반장이었던 선임하사의 구타로 얼굴에 큰 흉터가 남았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대를 했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군대에 있을 때는 크게 의식을 못했는데, 제대를 하고 사회에 나오니 얼굴에 생긴 큰 흉터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모두 자신만 바라보는 것 같아 대인기피증이 생겼고, 취업도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국가유공자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듣자니 국가유공자가 되면 매월 보훈연금도 나오고 국가에서 취업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전액 국비로

의료 지원을 해 준다고 했다. 무엇보다 성형수술을 통해 얼굴의 흉터를 없앨 수 있다는 사실에 D씨는 부푼 마음으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 잘못된 병상일지로 국가유공자 거부당해

그런데 신청한 지 몇 개월 후 D씨는 너무나 황당하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야 했다. 분명히 자신의 얼굴 흉터는 선임하사의 구타로 생긴 건데, 당시 군 병원의 병상일지에는 ‘동료와 다투다 다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은 공무와 관련성이 있는 부상일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장난,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결국 병상일지의 기록을 근거로 D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다는 말이었다.

분명히 선임하사의 구타로 받은 상처가 어떻게 해서 동료와 다투다 다친 것으로 기록되었는지 D씨는 알 수가 없었다. 그동안 고생하며 살아온 세월이 억울하게만 느껴졌다. 막막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찾은 곳이 바

로 우리 위원회였다.

D씨의 막막하고 참담한 심정과는 달리 처음 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었다. 수많은 국가유공자 민원을 처리했지만, 병상일지의 기록이 사실과 달리 기록된 경우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그럴 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우선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선임하사의 인사기록을 확인했다. 선임하사의 인사기록에는 D씨가 구타를 당한 시기에 구속되었다가 기소유예로 석방된 기록이 있었다.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기로 했다. 특전사 헌병단 등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확인 공문을 보냈지만, 시간이 꽤 흐른 사건이라 기록보존 기한이 지났다는 회신만 돌아왔다. 당시의 사건기록은 그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D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병상일지의 오기(誤記)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병상일지 외에 다른 기록물을 찾아야 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선임의 구타로...

동료와 다투었을 경우에는...



거쳐야 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기록물이 나왔다. 당시 중대장이었던 조모 대위가 작성한 ‘개인면담카드’로, 여기에는 당시의 구타정황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1988년 5월 22일, 구타사건 이후, 수도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받고 복귀, 정상적인 내무생활 규칙이 깨진 것에 대한 건의가 내무반장의 일방적인 구타로 이어진 것에 심히 괴로워함.>

### 당시 중대장·사병 모두 찾아 진실 밝혀

당시 중대장이었던 조 대위만 찾으면 해결이 될 것 같았다. 조 대위의 병적기록을 근거로, 현재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보한 뒤 직접 만나 당시의 이야기를 들었다. 다행히 그는 당시의 구타사건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수기로 작성된 개인면담카드의 필체

와 서명도 본인의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조 대위가 떠올린 당시 정황은 D씨로서는 떠올리기에 드물고 고통스러운 사건이었다. 사건이 나던 날 내무반장인 선임하사가 주말 외박순서를 임의로 바꿨고, 원래 외박 차례였던 D씨가 항의하자 선임하사는 D씨를 연병장 인근으로 불러내 일방적으로 구타했다는 것이다.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얼굴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상처가 심해서 바로 수도병원으로 후송됐는데, 당시 대대장이 지휘책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구타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고, 부대원들에게 입단속을 잘 하라는 취지의 정신교육까지 했다는 것이다.

추가적인 조사가 이어졌다. 당시 민원인과 함께 복무한 다른 특전사 장병들의 진술 역시 조 대위와 같은 내용이었다. D씨의

흉터가 동료와 다투다가 생긴 게 아닌, 선임하사의 일방적인 구타로 생긴 흉터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로 인해 D씨의 흉터가 군복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처에 권고하였고, 국가보훈처는 우리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D씨의 얼굴 흉터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D씨는 이후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뒤 상이7급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얼굴에 있는 큰 흉터도 전액 국비로 성형수술이 가능하게 되었고, 매월 보훈연금과 의료, 취업 등 국가유공자로서의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젊은 시절의 얼굴 흉터로 인한 마음의 상처까지 온전히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23년 전 구타사건의 진실이 밝혀져 그나마 참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D씨가 여전히 젊은 시절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분들이 개인의 상처를 혼자서 끌어안고 있지 말고, 용기를 내 우리 위원회에 찾아와 주면 좋겠다.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우리 위원회는 국민들의 억울하고 힘든 사연을 들어 주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

# 교사초빙 관련 비리 삭을 없앤다

## 군 자살자도 공무원 관련 땀 '순직' 인정 등 제도 개선

앞으로 교사 초빙시 비리가 사라지고 군에서 자살한 사람이라도 공무와 연관이 있으면 순직을 인정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 '초빙교사 제의 합리화 방안'을, 국방부에 '군 사망자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안'을 권고했다. 글: 권세진 기자

### 초빙교사제

#### 특정인 내정·업무 강제배정 등 문제

교육계에서 학교장의 고유 권한으로 인식되고 있는 초빙교사 제도가 투명해질 전망이다.

초빙교사제는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에서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사(현직 교사 및 교사자격증 보유 교육공무원)를 해당 학교 교사 총 정원의 20% 이내 범위에서 초빙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실시 중이다. 현재 전국의 초빙교사 수는 1만4366명에 달한다.

그러나 임용권자인 학교장이 사전에 특정인을 내정해 두고 초빙을 추진해 '자기사람 챙기기'에 나서거나 초빙교사를 초빙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는 등 제도상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또, 다른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강제로 배정하거나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 없이 초빙을 임의로 해지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이 같은 초빙교사 관련 민원은 2009년 165건에서 2010년 226건, 2011년 307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전교조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빙교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2.8%,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37.0%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초빙교사제 당초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초빙교사제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영리스트·박성훈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 초빙교사 신청서 교육청에서 일괄접수·배부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학교장 등이 초빙교사를 사전에 특정인으로 내정하지 못하도록 시·도교육청에서 초빙교사 신청서를 일괄 접수받아 해당 학교에 배부하게 되며, ▲꼭 필요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초빙요건 및 심사방법을 선발 공고 이전에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또 초빙교사가 될 수 없는 요건과 초빙교사를 초빙기간 중에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초빙교사 임의해지시 해당 학교는 교사 초빙 대상 학교에서 제외되는 제재를 받게 된다. 이 같은 개선방안은 내년 3월 임용되는 초빙교사부터 적용된다.

### 군 자살자

####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

군복무 중 자살하더라도 자살 원인이 공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순직'이나 '일반 사망'으로 분류될 수 있게 되었다. 또 군인의 사망원인을 정밀조사토록 하고, 자살시 사고조사 방법도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권고했다. 과거 군 자살의 경우 전부 '기타사망'으로 분류되며 복무 중 자살자는 원인을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위로금 500만원만 지급되었다. 2012년 기준 일반사망 보상금은 1314만원, 순직자 보상금은 8958만6000원이다.

해당 제도의 개선에 따라 구타 및 가혹행위 등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한 피해자도 구제될 수 있다.

또 군인의 사망원인에 대해 군 수사기관과 법원 등 국가기관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군에서 재심하도록 했다.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현재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이 국방부의 결정과 달리 '순직'으로 결정한 140여 건의 군 사망사고와 총 129건의 장기 미인수 영현(시신과 유골) 문제도 상당수 해소될 전망이다.

순직 여부를 판단하는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변호사와 정신과 전문의, 의무기록사 등 분야별 외부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심사결과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 군 사망사고 조사에 심리부검 실시

자살의 경우 원인규명을 위해 사망자의 생전 자료(SNS, 문자, 일기 등)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망원인을 찾아내는 심리부검제도



영리스트·박성훈

를 도입하는 등 군 사망사고 조사방법도 개선하도록 했다. 심리부검을 실시하면 사망자의 사망원인을 보다 객관화하고 유족에게 사망원인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심리부검을 통한 다양한 사례 분석이 누적되면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자살예방 프로그램 시행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유가족이 원할 경우 과거의 사망사고도 재조사하도록 했다. 또 각 국가기관(국방부 조사본부, 권익위 등)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각 기관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는 한편, 불필요한 행정력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사망사고 후속조치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유족 및 동료 장병들에 대한 정신과적 심리치료 지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범정부차원으로 진행되는 자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사회와 연계된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다만 군 부대가 있는 많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임을 고려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민간전문 치료시설을 활용토록 하고, 군 내 자살예방 활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신분을 인정해 우수자원 확보 및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했다.

# ‘민원편의 제공’ 다자간 협력 MOU 제안

김영란 위원장, 아시아 옴부즈만협회 이사회·바쿠 콘퍼런스 참석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은 6월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이사회에 참석해 다자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제안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쳤다. 또 해외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연수를 실시하는 등 권익위는 해외 국민 보호와 대외 교육·홍보 등을 통해 세계적인 국민소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글: 권세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앞줄 가운데)이 18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바쿠 콘퍼런스에 패널로 참석해 권익위가 운영중인 국민신문고의 외국어 민원창구와 외국인 대상 이동신문고, 110콜센터의 외국어 안내 서비스 등 권익위의 외국인 권익보호 정책들을 설명한 후 국제옴부즈만 회원국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6월 19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14회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Asian Ombudsman Association) 이사회 및 AOA 바쿠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AOA는 아시아 각국 옴부즈만의 정보와 경험 교환 및 발전을 위해 1996년 설립됐다. 아시아 지역 옴부즈만·감찰기구·기타 행정 민원 처리기관들의 공동체인 AOA는 20개국 29개 정회원 및 1개 준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사무국이 있다(표2 참조). 매년 이사회, 2년마다 총회를 개최하며 우리나라는 1996년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김영란 위원장은 2011년 12월 8일 일본 시즈오카현 누마주시에서 열린 제12차 AOA 총회에서 AOA 재무이사로 당선돼 활동하고 있다.

## AOA 운영 전반에 대한 11개 의제 논의

16일 출국한 김 위원장은 19일 바쿠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AOA 이사회에 참석, AOA 재무이사로서 협회 재무상황을 보고한 데 이어 AOA 회장직 수행 문제를 비롯해 AOA 운영 전반에 대한 11개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20개 아시아 회원국에 거주하는 해외 체류자들의 편의를 위해 체류국에서 민원을 내는 데 필요한 각종 처리절차와 언어 편의를 제공하자”는 내용의 다자간 협력 MOU 체결을 제안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국민권익위는 2010년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민원 처리 편의와 각종 권익보호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키르기스스탄, 태

국 등 AOA회원국인 옴부즈만 기관들과 양자간 MOU를 체결하고 양국에 거주하는 자국민 전용의 민원창구를 개설, 해외 현지에서 재외 국민들의 각종 건의사항을 듣고 고충을 해결하는 현지이동신문고 운영 등 민원처리 편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권익위는 오는 11월초 우즈베키스탄과 MOU를 체결할 예정이고, 중국·베트남·필리핀과도 협력체제 구축방안을 논의 중이다(표1 참조).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이번 제안으로 보다 많은 아시아 옴부즈만 회원국들이 권익위와 MOU를 체결해 회원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해외에서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9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 소재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제14회 아시아 옴부즈만협회(AOA, Asian Ombudsman Association) 이사회에 참석해 20개 아시아 회원국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체류국에서 민원을 내는데 필요한 각종 처리절차와 언어 편의를 제공하자는 내용의 다자간 협력 MOU 체결을 제안하고 있다.

### 〈표 1〉 권익위-외국 옴부즈만 협력 MOU 체결 현황

구분	체결일자	체결기관
옴부즈만 체결	2010. 2. 1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2011. 10. 12	키르기스스탄 옴부즈만
	2011. 12. 5	태국 옴부즈만
향후 옴부즈만 체결예정	2012. 11	우즈베키스탄 옴부즈만
	추후 체결예정	베트남 감찰원
	“	필리핀 옴부즈만
“	중국 신방국	



## 권익위의 주한 외국인 보호정책도 소개

김영란 위원장은 이어 열린 AOA 콘퍼런스에 패널로 참석해 권익위가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창구와 외국인 대상 이동신문고, 110콜센터의 외국어 안내 서비스 등 권익위의 주한 외국인 권익 보호 정책들을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아시아 각국의 옴부즈만들은 “한국의 권익위가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일관적인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부러운데, 외국인을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어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김 위원장은 출장 동안 사요라 래시도바 우즈베키스탄 인권위원장을 만나 양국간 옴부즈만 MOU체결 일정 등에 대해 환담을 나눴으며, 파넛 니티탄프라파 태국 수석옴부즈만을 만나 태국 거주 교민의 전용 민원창구 운영과 이동신문고 공동개최를 논의하기도 했다.

### 〈표 2〉 AOA 회원국 현황 (총 20개국 30개 기관)

국가	기관	국가	기관
파키스탄연방	연방옴부즈만	파키스탄	펀자브지방 옴부즈만
태국	옴부즈만	파키스탄	연방조세 옴부즈만
홍콩	옴부즈만	파키스탄	발로키스탄지방 옴부즈만
한국	국민권익위원회	파키스탄	연방보험 옴부즈만
중국	감찰원	파키스탄	은행 옴부즈만
이란	감찰원	우즈베키스탄	인권위원회
일본	행정평가국	베트남	감찰국
말레이시아	공공민원국	인도	마디아 프라데시주 옴부즈만
마카오	부패방지위원회	인도	아타르 프라데시주 옴부즈만
필리핀	옴부즈만	인도	델리 옴부즈만
파키스탄	신드지방옴부즈만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 지방 옴부즈만
파키스탄	아지드 자무 카시미르 옴부즈만	동티모르	옴부즈만
예멘	중앙통제감사원	타타르스탄	인권위원회
스리랑카	의회행정위원회	아제르바이잔	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키르기스스탄	옴부즈만

# 콜롬비아 공무원에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권익위,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7월 2일부터 2주간 실시



콜롬비아 반부패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15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한 권익위의 노하우를 전수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7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콜롬비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콜롬비아 공직감찰원(Procuraduría General de la Nación), 국가감사원(Contraloría General de la República), 국가검찰청(Fiscalía General de la Nación) 등 콜롬비아 반부패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15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서대문구 미근동 권익위 청사에서 부패예방 정책과 사건처리에 대한 강의와 토론, 감사원·조달청 등 관계기관 방문을 통해 한국의 전반적인 반부패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콜롬비아 주요 부패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권익위는 2006년 인도네시아와 '반부패 협력 MOU'를 체결하여 반부패 정책을 전수한 이래 태국, 베트남, 몽골 등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을 전파하고 있다.

특히 '청렴도 측정' 제도는 인도네시아 및 태국 현지에 도입되

어 청렴도 측정 제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2012년 유엔(UN)공공행정상(PSA: Public Service Award) '공공행정의 부패방지 및 척결'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반부패 교육 아프리카·중남미로 확대 계획

권익위는 이번 콜롬비아 반부패 역량강화 초청연수를 계기로 아시아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반부패 교육을 아프리카·중남미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계옥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환송사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험을 거치며 부패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한국의 경험이 콜롬비아에 긍정적인 교훈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부정부패 추방이 개발도상국의 우선과제인 만큼 반부패에 대한 기술전파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초청연수 대상국가를 확대하여 더 많은 국가에 교육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러스트 이철민

# 소 / 통 / 누 / 리

권익위가 갑니다 행정심판 전국순회 구술청취 현장

현장조정회의 KTX 정읍역사 6개월만에 공사재개

국민권익이 만난 사람 "권익위의 꼼꼼한 중재로 좋은 결실 맺게 돼 다행"

위원장의 편지 우리나라 청렴도도 대상을 받는 그날을 기다리며...

# “몸도 불편하신데... 저희가 직접 가죠”

## 행정심판 전국순회 구술청취 현장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제출된 서류를 통한 서면심리 이외에 청구인이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구술심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인 순회 구술청취를 시작하여 서울에 위치한 중앙행심위에 직접 구술하러 나오기 어려운 지방 거주자와 노약자, 장애인 등의 불편이 개선됐다.

글·박경아 기자



지방 거주자나 노약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현장 방문 순회구술 청취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장호익 상임위원은 지난 7월 2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충북도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충북 지역 행정심판 순회 구술청취를 주재했다.

충북도의 협조로 충북도청 내에서 열린 이날 순회 구술청취에서는 운전 관련 행정심판 11건, 그리고 일반 행정심판 1건에 대한 청취가 이뤄졌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충북지역 행정심판 청구인들이 이번 순회 구술에서 진술한 내용은 석유제품을 판매하면서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등록기준에 맞추지 못한 사정이 무엇인지,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생계곤란 여부 등이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한다.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들을 갖고 있다.

### 순회 구술청취의 확대

현재 행정심판은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앙행심위가 제공하는 인터넷 행정심판 시스템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국민편의를 위해 추가한 것이 2011년 도입한 행정심판의 순회 구술청취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서류를 통한 서면심리 이외에도 청구인이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구술심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순회 구술청취는 서울에 위치한 중앙행심위에 직접 진술하러 나오기 어려운 지방 거주자와 노약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해 중앙행심위의 행심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직접 지역을 방문해 구술을 듣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를 9개 권역으로 나눠 중앙행심위에서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던 운전, 보존, 일반 사건 등 모두 80건에 대한 순회 구술청취를 실시했다. 올해 순회 구술청취는 도입 첫해인 지난해와 비교해 횟수가 늘고 실시지역도 확대됐다.

먼저 올해 순회 구술청취는 전국 10개 권역에서 실시된다. 지난

해에는 실시하지 않았던 울산시와 제주도가 추가되었다. 7월 25일 청주에서 열린 순회 구술청취는 올해의 6번째 일정이었으며, 올 연말까지 전남·광주(9월), 전북(10월), 제주(11월), 강원(12월) 등 4개 권역에서 순회 구술청취가 추가로 실시될 예정이다.

또 찾아가는 행정심판 운영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구술청취를 지난해의 2회에서 5회로 확대했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보다 많은 국민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도입된 순회 구술청취는 특히 신체가 불편한 이들에게 유용했다. 지난 5월 30일 대구의 동대구역에서 열린 울산·경북지역 순회 구술청취에 참석해 군 복무 중 허리부상 인정을 요청하며 구술심리를 한 노모씨는 한 시간 이상 앉아 있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힌 경우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노씨는 2010년 7월 공군에 지원해 같은 해 8월 공군으로 선발됐으나, 한달 뒤 허리통증으로 병원을 갔다가 요추부 염좌 등을 진단받고 3주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9월 말 입대했다. 그러나 몇 주 뒤인 10월 각개전투 훈련을 받다 허리를 삐끗했으나 군 의관으로부터 파스 처방만 받았고, 자대 배치 후에는 에폭시작업, 빨래 등으로 허리부상이 악화되어 결국 대구의 민간병원에서 척추분리증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허리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노씨는 수술 도중 척추뼈에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면서 나사못이 척추신경을 건드리는 바람에 왼쪽 하체 근력이 저하됐고 쓰라린 통증을 느끼며 거동이 불편해 한 시간 이상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처리한 행정심판 건수는 2008년 중앙행심위가 권익위로 통합, 출범한 지 5년째인 올해 10만 건을 넘어섰으며, 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각종시험 불합격 처분, 정보공개 거부 처분, 영영정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산재보훈 관련 사건이 많이 청구되고 있다.

그 결과 운전면허 등 생계형 사건을 포함해 1만7000여 건의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았으며, 최근에도 ‘LH아파트 분양 주민에게 건축비 공개결정’ (6월), ‘공인중개사 시험출제 오류결정’ (7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결과들이 나와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 KTIX 정읍역사 6개월만에 공사재개

## 권익위 현장조정 중재로 7만3000여명 집단민원 해결

지난 3월 정읍시민 7만3000여 명이 제기한 KTIX 정읍역사 및 지하차로 개설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김영란 위원장은 “6개월 이상 중단됐던 공사가 재개됨으로써 호남고속철도(KTIX)가 당초 예정된 2014년에 완공될 수 있게 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정부 정책의 신뢰가 회복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글: 권세진 기자 / 사진: 서경리 기자



김영란 위원장이 6월 28일 정읍시 소재 호남고속철도 제4-3공구 현장사무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6월 28일 오후 전북 정읍시 정읍역 뒤편 역사(驛舍) 공사현장에는 지역언론과 정읍시,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민권익위원회, 지역언론 등의 관계자 50여 명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지난해 말부터 공사가 중단돼 을씨년스러웠던 공사 현장에 오랜만에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다.

정읍역사 집단민원은 12만 정읍 인구 중 7만3000여 명이 민원을 제기한, 이 지역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다.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읍 시민이 서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의 관심이 지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영란 위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민원인들과 공단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양측 간 절충안을 마련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지만, 향후 원만히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면 피해 심각”

그동안 정읍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4년 말 호남고속철도(KTIX) 1단계(오송-광주송정) 완공을 목표로 2009년 공사에 착수했다. 이에 맞춰 정읍시민들의 숙원이자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인 KTIX 정읍역사 신축 및 왕복 4차선 규모의 지하차도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정읍 인구가 지속적인 증가추세인 데다 새만금 등 전북과 서해안 남쪽 일대를 KTIX로 다른 지역과 연결하는 중요 거점이 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역사가 사업성이 없다고 뒤늦게 판단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1년 12월 돌연 공사를 중단했다. 공단측은 “약 800억원에 달하는 정읍역사·지하차도 신축 예산은 인구와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규모와 액수”라며 예산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우선 현 정읍역사를 증축해 사용하고 도심 개발 정도에 따라 선상역사와 지하차도를 단계적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업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KTIX 신축역사와 함께 일대 대대적인 개발을 기대했던 지역 주민들과 정



지난 6월 28일 호남고속철도 제4-3공구 현장 사무소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조정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읍시는 거세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로”라며 “공단 자체적인 조사에 의해 계획을 세워 놓고 이제 와서 계획을 백지화한다는 것은 일도당토않다”고 주장했다. 정읍시 129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정읍시민 7만3189명의 서명을 받아 올해 3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정읍시 역시 “용지보상비 13억원 등 약 70억원의 예산을 이미 투입했고, 공단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며 공사 재개를 주장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공단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국토의 균형발전 및 거점역으로서 KTIX 정읍역사의 위상 등을 고려하여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할 것을 공단에 지시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이용수요에 맞지 않는 과잉시설은 공단과 지자체의 부채규모만 늘릴 뿐”이라며 사업 전면 재검토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중단된 공사는 재개될 조짐조차 보이지 않았다.

### “7차례 실무협의 거쳐 중재조정안 마련”

이런 상황에서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실무협의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렵게 마련한 최종 중재안을 현장에서 확정하기로 하고 6월 28일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역사 건설현장에서 브리핑을 마친 관계자들은 제43공구 현장사무소 상황실로 자리를 옮겨 김영란 위원장과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김생기 정읍시장, 김한영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 민원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김영란 위원장이 조정회의에 앞서 관계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다.

김영란 위원장은 “정읍역사 집단민원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호남고속철도 전체의 사업완공 지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자칫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돼 권익위가 총 5회의 현장조사와 7차례의 실무협의 등을 거쳐 다수 이해관계자의 중지를 모아 중재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의 중재안은 정읍역사의 이용수요를 감안해 적정 규모의 선

상역사 형태로 건설하고, 공사가 중단됐던 지하차도는 당초 계획대로 높이 4.5m 이상의 왕복 4차로 규모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권익위가 마련한 중재안에 김영란 위원장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정읍시장,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 민원인 대표 모두가 서명하며 중재안은 확정됐다.

참석자들은 “양측의 주장이 워낙 팽팽해서 중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예상됐는데 원만한 조정이 성립돼 다행”이라며 “공사가 중단된 작년년부터 계속해서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있던 정읍시민들도 이제 맘 편히 생업에 종사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권익〉은 6월 28일 전북 정읍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KTX 정읍역사 건립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에 앞서 국민 권익위원회는 수차례 조정을 통해 중재안을 만들었고, 철도시설공단과 정읍시, 민원인 대표 등은 6월 28일 중재안에 합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중재안에 동의한 이들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건이었는데 권익위의 꼼꼼한 중재로 좋은 결말을 맺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글 권세진 기자/ 사진 서경리 기자

## KTX 정읍역사 현장조정회의 참석자들

# “권익위의 꼼꼼한 중재로 좋은 결실 맺게 돼 다행”



6월 28일 정읍역사 공사현장에서 김영란 위원장이 현장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예산 낭비 요소 없앤 중재에 존경과 감사”

정읍역사 건립을 담당하고 있는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중재를 이끌어 낸 권익위에 정말 감사 드린다”며 “권익위원회가 앞으로도 국민들을 따뜻하게 감싸 주는 역할을 계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의 얘기다. “사실 그동안 정읍역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점이 제기돼 왔어요. 역무원 침실 등 불필요한 공간들이 많아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설계상 문제가 있었고 보완이 필요했지요. 하지만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공단도 주민들로부터 심한 말을 많이 듣는 등 저희 입장에서 도 힘든 날들이었고요. 이 같은 대립 상황에서 권익위 관계자들이 꾸준히 참을성을 갖고 수개월에 걸쳐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김영란 위원

장님과 권익위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김 이사장은 이번 중재를 계기로 호남고속철과 정읍역사가 빨리 완공되도록 해 주민에게 빠르고 안전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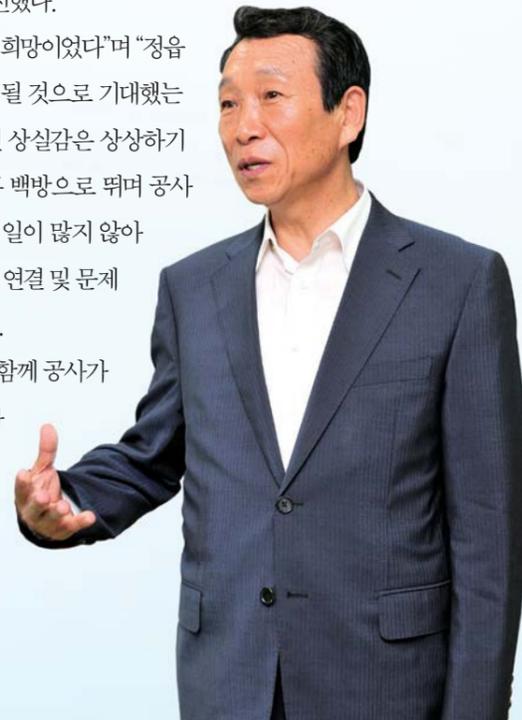
### 김생기 정읍시장

#### “서남권 지역 중심의 희망 되살리게 됐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국민고충의 최후의 보루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읍까지 내려와 문제를 해결해 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시장은 “KTX 신역사는 정읍 시민 모두의 희망이었다”며 “정읍역이 서남권 지역의 중심이며 호남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게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정읍 시민들이 느낀 상실감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또 공사 중단 이후 백방으로 뛰며 공사 재개를 위해 노력했지만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상심하던 중 권익위의 중재로 중앙부처와 긴밀한 연결 및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게 됐다고 김 시장은 설명했다.

“다행히 권익위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중재와 함께 공사가 재개돼 기쁘게 그지않습니다. 빨리 역사와 철도가 완성돼 주변지역이 발전하고, 시민들의 마음도 많이 다독여 줬으면 합니다.”



### 김한영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

#### “조금씩 양보 이끌어낸 중재자 역할 훌륭”

역사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인 김한영 교통정책실장은 “정부와 지역 주민 모두의 이야기를 공평하고 냉정하게 들어야 하는 사건인데, 원만히 중재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의 얘기다. “도로와 철도 등 수 많은 국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에는 정읍역사와 유사한 민원이 셀 수 없이 많이 밀려듭니다. 지역 주민들은 평정심을 잃고 분노하고, 정치인들은 또 그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지역 주민의 말을 듣고 국민 세금을 낭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도 정부 부처와 지자체, 주민들이 조금씩 양보해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사실 이렇게 이해가 침체하게 대립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권익위가 중재 역할을 훌륭하게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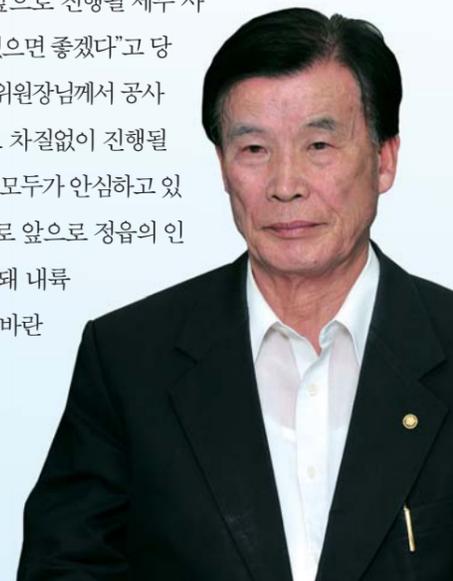


### 이한옥 시민대책위원장

#### “공사중단 이후 폭발할 지경의 민심 진정”

7만여 정읍시민을 대표해 정읍역사 신축 민원을 제기한 이한옥 위원장은 “그동안 권익위를 비롯해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고, 권익위의 적극적인 중재가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사실 시민들은 공사 중단 이후 공단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고 조금만 더 있으면 민심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권익위가 직접 나서 공단과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중간역할을 잘해 주었다”며 “권익위가 중재자인 만큼 앞으로 진행될 세부 사항에도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김영란 위원장님께서 공사가 속개되고 원래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정읍의 인프라가 더 많이 구축돼 내륙 지방의 중심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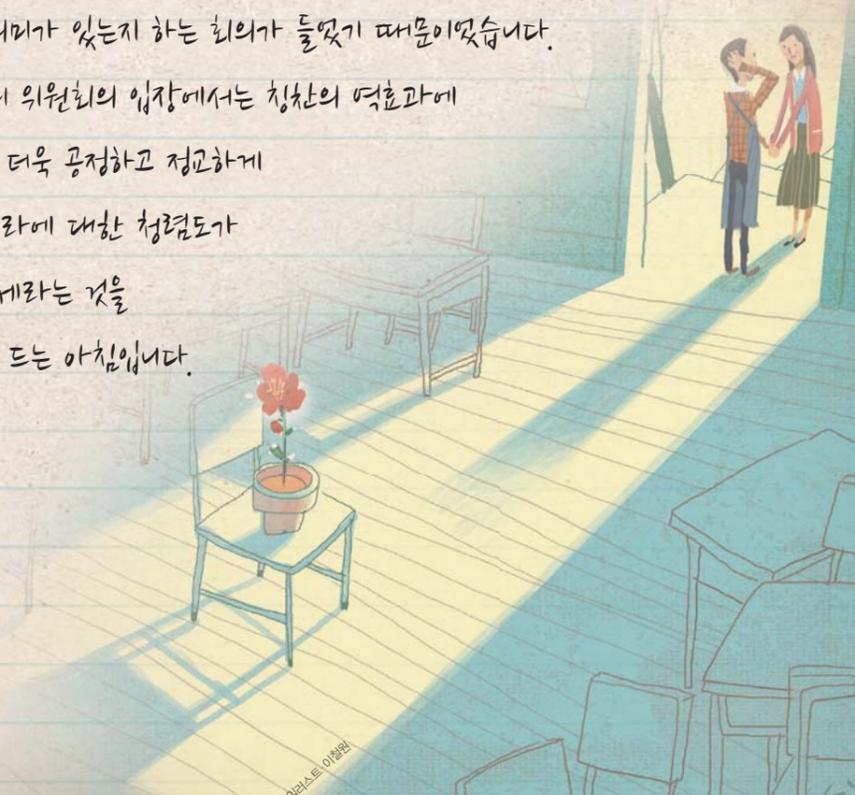


# 우리나라 청렴도도 대상을 받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속스러움을 많이 타서 칭찬에 인색한 편인 사람들이 자신을 한번 더 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준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칭찬하느냐에 따라 칭찬의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나친 칭찬은 중독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이겨내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언젠가 EBS교육다큐에서도 이와 같은 칭찬의 역효과를 여러 실험을 통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제대로 된 칭찬은 진심을 담은 칭찬, 노력에 대한 칭찬,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칭찬,  
 격려한 칭찬 등이라고 합니다. 지난 6월 25일 뉴욕의 유엔(UN)본부 총회장에서 있었던  
 유엔 공공행정상 시상식에서는 우리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시스템이 '공공행정의 부패방지 및 척결'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청렴도측정제도가 소개된 비디오가 상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가 대상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후 이를 얼마나 홍보하여야 하는지 조금 고민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청렴도가 대상을 받을 만큼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시스템만이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하는 회의가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청렴도를 평가하는 기관이면서 평가를 받기도 하는 우리 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칭찬의 역효과에  
 우리 스스로가 빠져들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청렴도평가를 더욱 공정하고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야 하기도 하겠지만,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청렴도가  
 대상감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2012년 6월 28일

김영환



일러스트 이철원



## 행 / 복 / 누 / 리

- 여행 제주 사려니숲길과 비자림
- 시네마 토크 <다크 나이트 라이즈>
- 건강 다이어리 우리 몸의 안보체계 면역력을 키우자
- 역사속 권익 북·팬과리 치는 '격쟁'... 백성들 억울한 사연을 임금께 직접 호소하다
- 스포츠 한국의 '골드러시' 주인공들
- 컬처 & 컬처 무더운 한여름밤의 축제
- i특독 '일상생활의 친구'... SNS로 소통하세요
- 이 한권의 책 <화산군 리용상>
- 뉴스 & 피플
- 독자와의 대화

# 제주 사라니숲길과 비자림 울창한 숲이 초록빛 휴식을 권하다

8월의 숲을 만나러 제주로 간다. 8월은 일년 중 숲이 가장 아름답고 찬란할 때. 한여름의 짙은 신록 속에서 숲은 밝고 눈부신 초록에 머문다. 그 초록은 마냥 싱그러워서 숲 속에 발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편이 환해지고 건강해지는 것 같다. 글과 사진·최갑수 (여행작가)

제주 사라니숲길에는 온갖 살아있는 것들의 기척들로 가득하다. 햇살을 받은 나뭇잎은 잠자리 날개처럼 투명하게 빛나고 8월의 따스한 공기 속에서 나무껍질은 말랑거린다.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나무를 누르면 지문이라도 남을 것 같다.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을 꼽으라면 단연 사라니숲길이다. 사라니숲길은 제주시 봉개동 비자림로에서 월등삼거리를 거쳐 남원읍 한남리 사라니오름에 이르는 15km 남짓한 구간을 말한다. 사라니는 '살아나' '술안'에서 비롯된 말인데, 살아나 술은 신성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사라니는 신성한 곳이라는 뜻이다.



상상한 초록을 뽐내는 8월의 제주 사라니 숲길.



교래자연휴양림을 걷는 여행객들.



따라비오름 초입의 목장.

숲길은 길다. 15.5km나 된다. 하지만 경사가 거의 없어 노약자도 힘들지 않게 걸을 수 있다. 숲길 곳곳에 참꽃나무숲, 치유와 명상의 숲, 서어나무숲 등의 테마포인트가 있어 아이들과 함께하기에도 좋다.

숲은 모두 10개의 구간으로 나뉘어 있는데 각 구간은 저마다 독특한 테마를 갖고 있는데, 사려니숲길은 한라산 400~600m의 구릉지대에 위치한 까닭에 고도에 따라 다양한 식물군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특징. 입구에서는 온대 낙엽수림을 만나지만 내려갈수록 온대수림으로 바뀐다. 모든 코스를 다 걸으려면 네다섯 시간은 족히 걸리지만 중간쯤에 성관악과 붉은오름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가다가 힘들면 다시 돌아와도 된다. 온통 삼나무숲으로 빼곡하게 들어찬 입구부터 범상치 않다. 탐방안내소를 지나 몇 발짝을 땀 때마다 '아! 이런 곳을 숲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삼나무숲을 지나면 송이길이 반긴다. 송이는 버섯이 아니라 화산의 분화로 분출되는 고체물질의 일종이다.

### “아! 이런 곳을 숲이라고 하는구나”

송이로 덮인 길은 부드럽고 폭신폭신하다. 숲길을 걸으면 싸리나무, 굴참나무, 서어나무, 삼나무 등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하다. 숲을 비집고 나온 햇살이 발등을 비추고 숲 너머에서 날아온 오색딱따구리, 곤줄박이, 박새, 휘파람새, 흰눈썹황금새, 팔색조 등의 울음소리가 어깨 위로 떨어진다. 숲길에서는 햇살을 쬐기 위해 길에 나선 살모사나 유혈목이, 구렁이, 비바리뱀을 종종 만나기도 한단다.

나비들도 떼지어 날아다닌다. 4월에 청띠신선나비가 숲에 나타

나면 그 뒤를 이어 네발나비, 산제비나비, 왕나비, 은줄표범나비 등이 연이어 등장해 10월까지 나비의 순례가 시작된다고 한다. 그만큼 숲이 왕성하게 살아 있다는 증거다. 팔을 벌리고 길게 심호흡을 해 본다. 콧속으로 맑은 공기가 스민다. 민트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갓 꺾은 방아잎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다. 아니면 아카시아향일까, 아니면 어떤 곰취잎에서 맡아 본 것 같기도 하다.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만 같다. 깨끗하게 삶은 행주로 생각의 기름기를 말끔하게 닦아 내는 느낌이다.

구좌읍 평대리에 자리한 비자림에는 아름답리 고목 수백 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다. 사려니숲길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비자림의 넓이는 44만8165㎡(13만5000평). 수령 300~800년의 고목 2800여 그루가 모여 있다.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숲이다.

비자림의 역사는 오래됐다.〈고려사〉에 ‘문종 7년 탐라국 왕자 수운나가 비자를 조정에 바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에는 굴, 말, 마른 전복과 함께 제주의 진상품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성종 24년에 나라에서 가장 긴요한 산유자목, 이년목, 비자목, 안식향나무가 제주에서 생산되므로 이곳에 표를 세워 벌채를 못하게 하고 경작도 금했다’고 써어 있다. 비자나무 열매는 구충제로 널리 사용됐고 씨는 짜서 기름으로 썼다. 독특한 향을 지닌 잎은 모기나 해충을 쫓는 데 이용됐다. 목재는 재질이 치밀하고 탄력이 뛰어나 고급 가구에 주로 사용됐으며, 고려시대에는 궁궐을 짓는 데도 사용됐다고 한다.

비자숲 한가운데에는 이 숲에 처음 뿌리를 내린 조상나무가 있는데, 800살이 훨씬 넘었다고 한다. 키 14m, 폭 6m에 달한다. 비자

나무가 1년에 고작 1.5cm를 자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나무는 얼마나 오랜 세월을 지켜 왔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일명 ‘사랑나무’라 불리는 연리목도 볼거리. 뿌리가 다른 두 나무가 서로 맞닿아 하나가 되었다.

비자림은 산책하기 좋다. 산책로가 잘 닦여 있다. 휠체어나 유모차를 끌며 가는 가족들도 쉽게 볼 수 있다. 울창한 숲 사이로 햇살이 새어들어와 부챗살처럼 퍼진다. 숲은 싱그러운 내음으로 가득하다. 비자나무 몸통이를 칠팜쿨처럼 감고 있는 주사철(기생나무의 한 종류)과 촉촉하게 물기 어린 나무 위에 자란 난초가 숲의 싱그러움을 더한다. 바닥에 깔린 검은 화산토는 발소리까지 뽀아들일 것처럼 부드럽다. 비자림은 마치 현실세계에서 한발짝 벗어난 듯한 느낌을 준다.

### 교래자연휴양림서 꽃자왈을 보다

교래자연휴양림은 2011년 5월에 개장했다. 꽃자왈 지대에 조성된 최초의 자연휴양림이다. 꽃자왈은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숲이다. ‘꽃’은 숲을, ‘자왈’은 돌과 가시나무 들판을 뜻하는 제주말.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용암 지형, 즉 용암이 굳어 가면서 쪼갠 갈라져 생긴 돌무더기 땅을 비집고 식물들이 자라 숲을 이루고 있다. 제주에는 한경·안덕, 조천·함덕, 애월, 구좌·성산 등 4개의 꽃자왈 지대가 있는데, 교래자연휴양림은 조천·함덕 꽃자왈지대에 속한다.

꽃자왈은 보온, 보습효과가 뛰어나고 지하수도 많다. 그래서 난대식물과 한대식물이 함께 자라는 특이한 형태를 띤다. 나무와 덩



원시의 모습을 간직한 교래자연휴양림.

굴식물, 암석 등이 뒤범벅이 돼 수풀처럼 어수선한 숲이 빛어내는 풍경은 숨이 멎을 듯 경건하다.

교래자연휴양림에는 꽃자왈을 둘러보는 생태관찰로(1.5km)와 꽃자왈과 초지를 거쳐 큰지오름까지 다녀오는 오름산책로(약 3.5km) 등 두 종류의 탐방로가 마련돼 있다. 생태관찰로는 아이들이 걸어도 부담 없을 정도로 경사가 완만하다. 오름산책로는 꽃자왈, 초지, 오름 등 제주의 특징을 고스란히 체험할 수 있는 길이다. 해발 400m로 비교적 높은 지대임에도, 낙엽활엽수림이 많이 분포하고 온대성식물도 많은 것이 특징. 새끼노루귀, 복수초 등 야생화도 산재해 있다.

시간이 난다면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자리 잡은 따라비오름에도 가 보자. 최근 들어 인기를 얻고 있는 오름이다. 초입의 숲 부분을 지나면 역대로 뒤덮인 민둥오름이라 시야가 환하다. 나무계단을 따라 20여 분 오르면 정상에 도착하는데, 멀리 태흥리와 남원리 바다가 아스라하다. 굽부리(분화구) 능선을 오르자 전망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밑에서 보던 것과는 판판으로 많은 봉우리와 굽부리를 거느리고 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펼쳐진 조망을 감상한다. 첫 봉우리에 올라서니 동쪽 가까이 모지오름의 큰 품이 보인다. 그 뒤로 한라산이 살짝 고개를 내밀었고, 멀리 우도의 우도봉 머리가 가물가물하다. 구좌읍 송당 일대의 높은오름, 백약이오름, 동검은오름, 좌보미오름 등이 어울려 빛어내는 스카이라인도 아기가기하다.



제주의 여름 별미인 성게비빔밥과 자리물회.

〈다크 나이트 라이즈〉

# 진보의 얼굴을 한 보수 배트맨, 또 악을 물리치다

잠룡(潛龍). 숨어 있는 용이다.

세상이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영웅은 세상을 떠나  
초야에 숨어 버린다. 하지만 숨어 있던 영웅이 다시 일어서야 하는 이유.  
세상이 혼탁해진 것이다. 영웅은 다시 귀환한다.

배트맨이 다시 스크린으로 돌아온 것이다.

글·정재형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오프앤프리 확장예술제 조직위원장)

배트맨 후속 시리즈 〈다크 나이트〉 제2탄, 〈다크 나이트 라이즈〉는 말 그대로 밤의 기사 배트맨이 전편에서 쓰러진 이후 다시 ‘일어서야’ 하는 전말을 다룬다. 세상은 그를 필요로 할 정도로 또다시 구제불능의 상황이 되고만 것이다.

〈다크 나이트 라이즈〉는 전편의 내용을 이어받는다. 전작에서 배트맨은 고담시의 악을 일소하려는 야심적인 검사와 손을 잡고 공동의 적을 없애는 데 성공하지만 검사는 죽음으로써 영웅이 되고 배트맨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다. 공권력이 시민 영웅을 이긴 것이다. 공권력이 정의롭다면 더 이상 임격정이나 홍길동은, 로빈 후드나 배트맨은 필요 없는 것이다. 씩씩한 마음을 안고 배트맨은 무대에서 퇴장한다.

〈다크 나이트 라이즈〉는 배트맨이자 대부호인 부르스 웨인의 초라한 모습에서 시작한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며 장기는

모두 손상돼 거의 죽음 직전에 놓인 노인의 신체가 됐다. 악의 세력은 웨인 기업을 인수하고자 웨인 퇴출작전을 진행시킨다. 그들은 새로운 인간병기를 도입한다. 천하무적 테러리스트 베인. 그는 무소불위의 힘으로 월스트리트 증권가를 장악한 후 이름을 도용해 웨인사 주가를 폭락시킨다. 웨인은 회사에서 쫓겨나고 알거지가 된다. 그 순간 악당의 하수인이던 베인은 본색을 드러내 모든 권력을 장악하면서 고담시 파괴를 선언한다. 그는 고담시를 권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시민들 손에 돌려주겠다고 공언한다.

### 새로운 악의 세력 앞에 공권력 무릎

전편에서 조커를 물리치고 뉴욕시를 평화롭게 했던 공권력은 새로운 악의 세력 앞에서 허망하게 무릎을 꿇는다. 배트맨은 자신의 힘을 회복한 후 베인을 제거하기 위해 나선다. 배트맨이 다시 나올 정당성이 갖춰

진 것이다. 하지만 베인의 힘은 배트맨을 능가한다. 배트맨은 감옥에 갇히게 된다. 중동 어느 지역에 존재하는 감옥은 아무도 탈출하지 못한다. 유일한 탈출지는 역대 단 한명, 그가 바로 어린 베인이라는 전설이 전해져 온다. 우여곡절 끝에 배트맨은 그곳을 탈출하여 베인을 제거한다. 마지막 반전을 통해 관객은 또 한번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영화는 막을 내린다.

배트맨이 다시 일어난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는 영화, 〈다크 나이트 라이즈〉. 하지만 이 영화의 메시지는 새로운 악당 베인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놓여있다. 베인의 주장은 마치 공산주의 이념과 같다. 그는 빈부격차, 계급갈등이 존재하는 고담시,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국의 현 상황을 비판하고 나선 최근의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즉 ‘월가를 점령하라’ 인 것이다. 영화에서 베인이 월가를 점령한 것은 실제 현실의 영화적 암시이다.



최근 경기가 하락하자 미국 시민들은 제2의 공황에 직면하여 극단적인 반체제 투쟁에 나섰다. 그건 금융자본에 대한 비판이다. 그동안 금융자본의 덕을 본 부자들은 금융자본을 새로운 부의 증식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라 전체가 가난해지고 부자들마저 도산하자 이제 금융자본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그건 미국 자본주의가 초래한 현대의 대표적 악으로 부상했다. 영화에서 주식을 폭락시켜 웨인을 파멸시킨 사건은 이를 상징적으로 재현한 것이라 본다.

새로운 악당 베인이 공감대를 갖는 부분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미국 정치를 비판하면서 마치 시민들의 해방자처럼 군림하기 때문이다. 전편부터 이어져 온 화두인 공권력은 과연 정의로운가에 대한 논쟁은 여기에서도 재연된다. 공권력이 시민들의 편이 아니라 재벌, 자본가의 편이 될 때 정의롭지 않고 부도덕하다. 그런 공권력은 해체되어야 마땅하

다. 이제 권력은 시민들이 직접 행사하자. 마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망령이 재소환된 느낌을 갖는다. 그들은 인민재판으로 적들을 처단한다. 이때 관객은 아차, 베인은 민중의 해방자가 아니라 또 다른 민중의 가면을 쓴 압제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 진보와 보수의 가치를 융합한 배트맨

관객은 역사적으로 공산주의가 얼마나 민중을 억압했는지 알고 있다. 그 이상뿐인, 이념뿐인 공산주의를 관객들은 원하지 않는다. 공권력의 혐오가, 정부의 무능이, 금융자본주의의 부패가 공산사회 건설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것을 관객들은 알고 있다. 공산사회를 경계한다는 측면에서 이 영화는 보수적이다. 하지만 금융자본주의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진보적 주장을 담고 있다.

영화는 그 지점에서 배트맨을 부활시킨다. 진보와 보수의 가치를 배트맨이 중간에서 융합한다. 시민들의 불만을 공권력이 대변하지 못한다면 시민영웅이 다시 일어서야 하는 논리가 주어진다. 하지만 국가정체를 해체하지는 않는다. 정책을 비판은 하되 정부전복을 기도하진 않는다. 그동안 할리우드 영웅영화는 그 비판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보수성을 보여 왔다. 항상 미국적 가치와 그 반대자들과의 싸움이였다. 하지만 〈다크 나이트 라이즈〉의 보수성은 두 얼굴을 갖고 있다. 진보의 얼굴을 한 보수다.

세균이 체내에 침투했을 때, 우리 몸이 외부 침입자들을 물리치는 과정은 크게 2단계로 나뉜다. 이를테면 초기 국지전과 본격적인 정규전이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들어와 제일 먼저 세포 입구에 있는 '톨게이트' 같은 수용체(Toll Like Receptor)와 결합한다. 여기서 우리 몸은 미생물과 최초 전투를 벌인다. 척후병이 적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상황인 셈이다.

이 결과로 세포와 조직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 우리 몸은 열이 나거나 몸살 기운을 느낀다. 적의 침입을 알리는 신호다. 이런 초기 면역반응은 미생물의 정체와 상관없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일어난다. 따라서 톨게이트 같은 수용체(TLR)가 유전적으로 부실한 사람들은 세균감염 초기에 매우 심각한 증상을 앓는다. 즉 초계병이 부실하면 적들의 침입에 금세 무너진다는 것과 같은 원리다.

### 암에 걸리는 것도 면역체계의 고장

초기대응으로 미생물과의 싸움이 버겁게 느껴지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정규군 사령부에 해당하는 수지상세포(樹枝狀細胞·dendrite cell)가 움직인다. 미생물과의 싸움이 국지전에서 정규전으로 확산하는 과정이다.

수지상세포는 주로 면역 방어 체계의 핵심 주력군인 'T면역구' 등을 활성화해 대거 방출시킨다. 본격적으로 군병력이 출동하는 격이다. 이후 면역체계가 총동원되어 미생물을 죽이는 항체(抗體)와 살해 세포(killer cell)가 투입된다. 군수공장을 가동하여 무기를 만들고, 특수 무장 군인을 전쟁에 투입하는 셈이다. 이를 통해 세균과 바이러스와 본격적인 정규전이 벌어지고,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승리하면 미생물은 서서히 제거된다.

이런 면역은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안보체계다. 암에 걸리는 것도 면역체계의 고장이다. 우리 몸 안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암세포가 출몰한다. 유전자변이로 또는 발암물질에 의한 자극으로 성장이 멈추지 않는 암세포가 생긴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탐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손씻기를 어려서부터 습관화 하면 좋다. 조선DB

## 우리 몸의 안보체계 면역력을 키우자

우리 몸이 세균·바이러스·곰팡이의 외부 침입으로부터 보호되고, 암세포 같은 몸 안의 비정상 세포를 제거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면역이라는 대응체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렇다면 면역체계는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

글·김철중(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영상의학과 전문의)

식세포가 순찰하다가 이상하게 생긴 암세포를 발견하면, 이를 에워싸고 잡아먹는다. 이런 과정이 정상적이면 암세포가 덩어리를 형성할 수 없다. 면역력은 나이가 들면 감소한다. 면역세포 활성이 노화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나이 들수록 암에 잘 걸리는 이유다.

면역력을 키우려면 상식적인 얘기지만, 잠 잘 자고, 골고루 영양섭취하고, 무리하지 말고, 과음과 흡연 절제하고, 정기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 햇볕을 쬐며 걷는 것도 좋다. 세균 감염을 줄이는 손 씻기도 철저히 해야 한다. 반면 스트레스는 면역력 약화에 결정적이다. 주변에서 보면 사회적으로나 가족관계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할 때가 있다.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잡아먹는 것이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긍정적인 사고다. 미국 하버드 의대 암 전문의 제롬

### 면역력을 키우는 일상

- ① 햇볕 쬐며 걷기
- ②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땀이 날까 나는 운동하기
- ③ 비타민, 무기질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기
- ④ 잘 웃고, 잘 울고, 잘 자기
- ⑤ 피곤이 쌓이지 않도록 무리한 활동 하지 않기
- ⑥ 철저한 손 씻기.
- ⑦ 자신만의 방법으로 스트레스 관리하기

그루프먼 박사는 <희망의 힘>이란 책에서 희망이 갖는 치유의 힘을 강조하며 "희망은 암을 녹여 버리는 힘을 가졌다"고 말했다. 희망의 치료 성분은 '믿음'과 '기대'다. 이것이 뇌에서 엔도르핀과 엔케팔린이라는 물질을 분비시켜 모르핀과 비슷한 통증 완화 효과를 내고 질병 치유를 유도하고 면역력을 높인다. 수술이나 의료 처치 후 결과도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환자일수록 결과도 좋고 회복도 빠르다.

### 긍정적 사고는 면역력 높이는 특효약

의학계에서는 '플라세보(Placebo)'라고 부르는 '가짜 약' 효과가 있다. 밀가루로 만든 약이라도 이것으로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으면 증세가 좋아지는 효과를 말한다. 어렸을 적에 느꼈던 '엄마 손이 약손'이라는 것도 엄마가 내 병을 고쳐 줄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에서 나오는 효과다.

울고 싶을 때 잘 우는 것도 면역력에 좋다. 웃음이 면역력을 높여 주는 것처럼 울음 역시 스트레스를 해결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 준다. 눈물을 '신이 인간에게 준 치유의 물'이라고 말하는 의사들도 있다. 남자의 평균수명이 더 짧은 이유 중 하나가 여자보다 덜 울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 울고 나서 심신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느끼는 것은 똑같다.

세상은 어차피 스트레스를 피해 살 수는 없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하느냐에 면역력과 건강이 달렸다. 역세계 저항하지도 않고, 거세계 폭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남몰래 삭이지도 않는 생활이 최선이지 싶다.

# 북·꽩파리 치는 '격쟁' 백성들 억울한 사연을 임금께 직접 호소하다



1791년 1월 22일, 궁궐 근처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백성 박필관이 궁궐 앞에서 북과 꽩파리 등을 치며 소란을 부렸다. 왕 정조는 무슨 연유인가를 알아보도록 하였다. 그는 임금이 보낸 자에게 자신이 하고픈 말을 전했다. 정조는 박필관의 요구를 직접 검토하여 처리하였다. 이것은 조선시대 억울한 사연이 있거나 임금께 바른 말을 올리고 싶을 때 일반 백성이 행하던 격쟁이라는 것이었다.

글·김정미(사나리오작가)

격쟁(擊鑼)의 원래 뜻은 징이나 꽩파리를 때린다는 것이고, 비슷한 말로는 격고도 있다.

격쟁이란 조선시대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이 궁궐에 난입하거나 국왕이 궁궐 밖으로 행차하는 때를 기다려 징·꽩파리(鑼·鞀) 등을 쳐서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 자신의 사연을 국왕에게 직접 호소하는 행위였다.

## 백성들 신문고보다 선호 정조, 장려하며 민의 수렴

조선 초기 만들어진 제도인 신문고 제

도가 유아무야해진 반면 이 격쟁은 조선 중기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정조 때는 최정점에 이르렀다. 격쟁은 반드시 궁궐까지 가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신문고와는 달리 임금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 가서 돌발적으로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백성들이 선호하는 방법이었다.

격쟁은 궁궐에 직접 가서 하기도 했지만, 지방의 일반 백성들은 주로 왕이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를 기다렸다가 꽩파리 등을 치며 소란을 부려 행차 길을 잠시 막고 자신의 사연을 호소하는 방법을 취했다. 정조

때 격쟁이 많아진 것은 정조가 이전의 왕들과 달리 민의를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 자신이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 일으키는 격쟁을 허용, 혹은 장려까지 했기 때문이었다. 정조는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이 있는 수원으로 자주 행차해 그 오가는 길에 격쟁을 통해 백성들의 사연을 듣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하였다.

격쟁 사건의 처리는 형조가 맡았다. 격쟁에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일단 소란을 부리고 왕의 갈 길을 막은 죄에 대한 벌은 형식적으로 가볍게 치려야 했다. 격쟁 당사자는 형조에 체포되어 형식적으로 곤장을 약간 맞았는데, 이는 꼭 중요한 일이 아닌데도 장난으로 격쟁을 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했다고 한다. 형식적인 곤장을 맞은 후에는 억울한 사연을 구두로 아뢴 수 있었다. 사연은 3일 안에 임금에게 보고되었으며, 임금은 사연을 듣고 직접 그에 합당한 처리를 하였다. 글을 모르고, 위로 층층이하 계급의 장벽에 짓눌려 있던 백성들에게 격쟁은 최후의 수단이자 가장 시원하게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이었다. 그러기에 격쟁은 때로 남발되어 사회문제화되기도 하였다. 해서 조선 후기로 가면 서 격쟁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세우기도 했다.

격쟁을 할 수 있는 내용은 형벌이 억울하게 자신에게 미치는 일, 부자(父子)의 관계를 밝히는 일, 정실부인과 첩을 가리는 일, 양인인지 노비인지를 가리는 일 등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호소하도록 제한하였고, 격쟁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무고일 경우는 격쟁한 자에게 곤장 80대를 치도록 하였다. 또 격쟁 내용의 범위를 자손이 조상을 위하여,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아우가 형을 위하여, 노비가 주인을 위하여 등의 네 가지로 제한하였다.

## 관료들의 반발에도 '민의 창달' 주요 수단으로

그러나 격쟁이 반드시 이런 제한적 원칙 하에서만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다. 앞서 말한 정조 때의 박필관의 경우 그가 올린 격쟁 내용은 사뭇 사회개혁적인 성격이 크다. 박

필관은 당시 농촌사회에서 문제가 되던 일들을 격쟁을 통해 조목조목 아뢰었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아전과 백성이 결탁하는 일, 상민이 죽보를 위조하여 양반인 체하는 일, 소를 함부로 잡는 일, 산의 소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일을 고발하여 이를 금지시키도록 청하고, 지방 토호들이 토지를 마음대로 늘리는 것을 비판, 30결 이상 장토(莊土)의 소유를 금지해 줄 것과 노비를 30명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청했다. 또 군역 대신 거둬들이는 포가 너무 많음을 호소, 이를 20척(尺)으로 줄여 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는 자기 주변 사람의 억울한 사건을 호소하는 단순한 내용의 격쟁이 아니라서 논란이 되었다. 형조에서는 한낱 무지렁이 백성이 나라의 일을 말한다 하여 큰 벌을 내릴 것을 주장했지만, 정조는 형조의 의견을 물리치고 박필관의 청원 사항을 꼼꼼히 검토 한 뒤 처리사항을 지시하였다.

정조는 군역의 수포문제나 지방 토호의 토지 및 노비 제한 문제는 그 뜻이 가상하지

만 시책할 방책이 마련되지 않아 갑자기 시행하면 소란이 야기되니 당장 조치할 수 없지만, 그 외 박필관이 아뢴 지방의 폐단은 즉시 처리 시정하겠다는 답을 내놓았다. 왕이 시스템의 매너리즘에 젖은 관료들의 의견을 제치고 일개 백성의 신선한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박필관이 이 일로 벌을 받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박필관의 격쟁은 당시 일반 백성이 나라의 일을 고민하고 격쟁을 통해 이를 임금에게 아뢴 만큼 의식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증거이며, 이에 대한 임금의 수용 및 정책반영은 정조의 민의에 대한 인식이 상당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었다. 정조의 격쟁 장려는 당시 관료들의 반발을 많이 샀지만, 꾸준히 지속되었다. 거듭되는 격쟁을 통해 백성들은 단순한 사건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 겪는 사회경제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격쟁을 종종 이용하였다. 이로써 격쟁은 조선 후기 '민의창달'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일반 백성들이 서서히 자신들의 권리를 의식하고 찾아가는 데 큰 몫을 하였다.



# 한국의 '골드러시' 주인공들 “대~한민국” 합성 속에 금 10개·세계 10강 이끈다

‘런던에서 런던으로.’ 한국의 2012 런던 올림픽 참가 의의는 남다르다. 국호(國號)를 되찾고 처음 출전한 하계올림픽이 1948년 런던 올림픽이었는데, 64년 만인 올해 다시 런던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참가하기 때문이다. 1948년 대회 때 동메달 두 개를 거뒀던 한국은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선 금 13개, 은 12개, 동 8개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내며 종합 7위를 했다.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10개 이상으로 세계 10강에 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태극 문양을 달고 출전하는 우리 선수 250여 명 중 한국의 ‘골드러시’를 이끌 주인공은 누구일까. 글·성진혁 (조선일보 스포츠부 기자)

## 수영 박태환 (남자 자유형 1500m·5일 오전 3시36분 결선) 결선에 오르면 중국 쑨양과 세기의 맞대결

박태환(23)의 주종목은 자유형 400m와 200m다. 그동안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같은 큰 무대에서 이 두 종목에서만 메달을 땀다. 이번엔 자유형 1500m도 주목해 보자. 그는 2월에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뉴사우스웨일스 오픈 챔피언십 경기에서 14분47초38의 한국신기록으로 1위를 했다. 본인이 2006년 12월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며 세웠던 종전 한국기록(14분55초03)을 7초65 앞당겼다.

박태환은 도하 아시안게임 때 아시아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자유형 1500m의 15분 벽을 깼다. 수영장에서 열리는 최장거리 종목인 1500m에 애착이 컸다. 하지만 이후 기록 단축엔 실패했다.

2007, 2009 세계선수권과 2008 올림픽엔 결선에도 오르지 못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선 중국의 신에 쑨양에 26초, 거리로는 50m쯤 뒤진 15분 01초72로 은메달을 따는 데 만족해야 했다.

박태환은 패배를 받아들였다. 1500m는 실전에 참가하지 않고 400m 레이스에 필요한 지구력 강화훈련의 하나로 삼았다. 작년 상하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1500m는 포기했다. 당초 런던 올림픽에도 1500m 출전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태환의 새 한국기록은 2012 시즌 기록으로 따져 쑨양(14분42초30)에 이어 세계 랭킹 2위에 해당한다.

박태환은 대한수영연맹 측의 권유를 받아들여 올림픽 1500m에 참가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일단 결선까지 오른다면 입상 가능성은 충분하다. 현 세계 기록은 쑨양(14분34초14)이 갖고 있다.

## 배드민턴 이용대-정재성 (남자 복식·5일 오후 9시 결선) 세계랭킹 1위 복귀... 7년 단짝 '금스매싱'

이용대(24)는 2008 베이징 올림픽 때 ‘윙크 한 방’으로 국민적인 스타로 떠올랐다.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이효정과 우승하고 나서 방송 카메라를 향해 눈을 찡긋하며 수많은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당시 금메달을 노렸던 또 다른 종목인 남자 복식에선 1회전(16개 팀 출전)에서 탈락했다. 당시 세계랭킹 3위, 지금은 1위다. 파트너는 그때와 같은 정재성(30)이다.

이용대와 7년 단짝인 정재성은 팬들에게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런던이 마지막 올림픽인 정재성은 “돌아가신 어머니,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오랜 파트너 용대를 위해 금메달을 따겠다”고 말한다.

정재성은 4년 전의 실패에 대해 “경기 전날 이상하게 잠을 제대로 못 잤다. 내가 긴장한 탓”이라고 했다. 자책감 탓에 경기장 구석에서 남몰래 울음을 삼켜야 했다. 그의 어머니는 위암 투병 끝에 베이징 올림픽 이듬해인 2009년 10월 향년 53세로 세상을 떠났다. 4형제의 막내인 정재성은 유달리 자신을 아꼈던 어머니의 영전에 꼭 금메달을 바치겠다고 결심했다. 정재성은 10년 열에 끝에 작년 5월 같은 배드민턴 선수였던 최아람씨와 결혼하며 안정을 찾았다. 결혼식 사회자는 이용대였다.

이용대(오른쪽)-정재성



정재성과 이용대의 런던 올림픽 전망은 밝다. 5월 인도네시아 오픈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며 라이벌인 차이완-푸하이핑(중국) 조를 제치고 3년3개월 만에 세계랭킹 1위에 복귀했다. 특히 런던 올림픽부터는 조별리그를 거쳐 8강부터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베이징 때처럼 불의의 일격을 당해 조기 탈락할 위험성이 줄어들었다.

이용대와 정재성의 사이는 돈독하다. 정재성은 “베이징 대회 때는 나이 차 때문에 솔직히 용대가 나를 어려워했다”며 “이젠 정말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고,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가 됐다”고 말했다. 이용대는 남자복식 외에 하정은(25)과 함께 나서는 혼합복식에서도 ‘윙크 세리모니’를 재현할 작정이다.

**역도 장미란** (여자 75kg 이상급 · 5일 오후 11시30분 결선)  
**세번째 올림픽 도전... ‘베이징의 영광’ 재현**

장미란(29)은 2008 베이징 올림픽 최고의 여성 스타였다. 베이징 올림픽 여자 역도 최중량급(75kg 이상급)에서 다섯 번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서른 나이를 바라보는 역사(力士)는 올림픽 2연속 우승으로 선수생활의 대미를 장식하고 싶어한다. 장미란은 “정상을 지키기보다는 도전자의 마음가짐으로 출전한다”며 “세 번째 올림픽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 메달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미란의 몸에 고된 훈련의 흔적이 뚜렷하다. 바벨을 잡기 위해 손에 감은 붕대에 피부가 쓸려 손등에 시커먼 자국이 남아 있었다. 몸이 전성기 같지 않다. 작년엔 골반 부상 후유증 탓에 전국체육대회를 뺀 다른 대회에 불참했다. 세계선수권도 포기했다. 왼쪽 어깨도 다쳐 재활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외국의 라이벌들은 장미란을 추월했다. 중국의 주룽루(24·중국)는 개인 합계 기록이



장미란

328kg. 타티아나 카시리나(21·러시아)는 327kg이다. 장미란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세웠던 개인 최고 기록(326kg)보다 약간 앞선다. 올림픽에선 인상·용상의 합계 기록만으로 순위를 가린다.

장미란은 라이벌들의 선전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 오히려 “나이가 있어 몸이 4년 전 베이징 올림픽 때 같지는 않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동기부여도 되고 좋다”고 여유를 보인다. 장미란은 런던에서 현 세계기록 보유 종목인 용상(187kg)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

**체조 양학선** (남자 도마 · 6일 오후 11시41분 결선)  
**‘도마의 개척자’... 고난도 기술로 金사냥**

양학선(20)은 ‘도마의 개척자’다. 작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최고 난도 7.4의 신기술로 우승했다. 사상 첫 공중 3바퀴를 회전하는 기술이었다. 도약 후 구름판을 밟고 뛰어오르면서 도마를 양손으로 짚은 다음 공중으로 솟구쳐 1080도를 돌았다.

국제체조연맹(FIG)은 이 기술에 그의 영문이름을 따 ‘YANG Hak Seon’이라는 이름으로 채점 규정집에 올렸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걸었을 때까지만 해도 양학선이 특기로 삼은 기술은 1996 애틀랜타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여홍철이 개발한 ‘여2’였다. 공중에서 두 바퀴 반(900도)을 돌고 착지하는 이 기술은 난도가 7.0점이다.

그런데 양학선은 그해 세계선수권에선 착지가 흔들려 4위를 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려면 고득점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압도적인 높은 연기를 펼쳐야 잔 실수를 하더라도 점수에 여유가 생긴다는 계산이었다. 양학선은 1년 가까이 연구와 훈련을 거듭한 끝에 작년 7월 코리아컵에서 1080도 회전 연기를 처음 선보였다. 지금은 훈련 때 거의 성공할 만큼 연마했다.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이자 2010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토마 부엘(프랑스)이 왼쪽 무릎 인대 부상 탓에 이번 올림픽을 포기하면서 양학선의 금메달 가능성이 더 커졌다. 양학선을 추격할 선수로는 루마니아의 플라비우스 코크지(26)가 꼽힌다. 베이징 올림픽 도마 7위, 2009년 베오그라드 · 2011년 선전 여름유니버시아드 1위, 2012 몽펠리에 유럽선수권대회 1위를 했다. 양학선의 점수



양학선

와는 아직 0.3점 정도 뒤진다. 체조에선 상당히 큰 격차다. 양학선은 런던 올림픽 1차 시기에 선 특기인 ‘양학선’을, 2차 시기 댄 공중에서 세 바퀴를 비틀어 도는 스카라 트리플(난도 7.0점)을 펼칠 예정이다.

**리듬체조 손연재** (9일 오후 9시48분 · 개인종합 예선 2)  
**10위권 진입으로 첫 올림픽 결선진출 노려**

한국 리듬체조는 2008 베이징 올림픽 때 신수지가 출전하면서 비로소 올림픽 무대를 밟았다. 리듬체조 요정으로 인기몰이를 하는 손연재는 런던에서 첫 올림픽 결선 진출까지 노린다. 8월 9일과 10일 예선라운드 4종목을 치른다. 합계 점수로 10위 진입이라는 목표를 이루면 대회 폐막 하루 전인 11일 결선에 나선다.

최근 2년간 손연재의 상승세는 무척 인상적이다. 세계선수권 결선성적은 2010년 32위에서 작년 11위로 올랐고, 올해는 월드컵 시리즈인 러시아 펜자 대회와 불가리아 소피아 대회에서 동메달 두 개(후프·리본)를 땀다. 2012년 5월 국제체조연맹(FIG) 세계랭킹은 5위로 올라섰다. 작년 말엔 19위였다. 작년 초부터 러시아 노보고르스크 센터에서 엘레나 니표도바 코치의 지도를 받으면서 기량이 좋아졌다.



손연재

손연재는 5월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월드컵 결선의 리본 종목 경기 댄 ‘올림픽 액뎀’을 했다. 연기 초반부에 리본이 끊어지는 악재를 만났다. 다른 리본을 가지고 연기를 새로 하더라도 감점이 커 우수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경기를 포기한다.

하지만 손연재는 러시아 전지훈련을 하는 동안 친해진 알리야 가라예바(24·아제르바이잔)의 리본을 넘겨받아 연기를 새로 했다. 남의 리본을 사용하면 0점 처리(실격)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팬 서비스를 했다.

현재 세계 1, 2위는 러시아의 예브게니아 카나예바, 다리아 콘다코바. 이들은 작년 세계선수권 금, 은메달을 차지했다. 카나예바는 역대 리듬체조 사상 최고의 선수로 꼽힌다.

이번 올림픽도 판세는 비슷하다. 1, 2위는 몰라도 3위부터 10위까지 순위는 예측하기 어려운 점전 양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작년 세계선수권 개인종합 3위는 알리야 가라예바였다. 손연재는 러시아, 크로아티아 전지훈련을 마치고 영국 셰필드에서 마지막 담금질을 한 다음 런던에 입성했다.



여의도 한강공원 수요 재즈의 밤.



가든파이프 중앙광장의 서머페스티벌.

# 무더운 한여름밤의 축제

도심 속 야외공연 '활짝'

열대야가 이어지는 여름밤. 덥다고 짜증내며 집에만 있을 것인가? 집 밖으로 나가면 시원한 무료공연들이 기다린다. 낭만과 추억은 더하고 무더위는 잊게 해 줄 한여름 밤의 도심 속 야외공연을 소개한다.

## 한강 공원 여의도에 재즈·선유도엔 시가 흐른다

마땅히 갈 곳이 없을 때, 가장 만만한 곳은 한강이다. '도심 속 오아시스' 한강에서는 매일 다양한 공연이 기다린다.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열리는 '물빛무대 수요 재즈의 밤'은 색소폰 연주와 재즈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 열린다. 선유도공원에서는 매주 토요일 8시 '시가 흐르는 서울'이, 마지막 주 토요일 반포한강공원 미디어아트갤러리에서도 '문학과 음악이 흐르는 한강'이 펼쳐진다. '문학과 음악이 흐르는 한강'은 한강과 관련된 문학 이야기와 공연이 함께하는 무대로, 오는 8월 25일에는 '별별(星) 이야기 한강'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8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12개 한강공원 곳곳에서는 거리공연예술가 60개 팀이 꾸미는 '한강 거리공연 예술가 활동'도 이어진다.

문의 여의도한강공원 ☎(02)3780-0561, 반포한강공원 ☎(02)591-5943

## 운현궁 이로당 금요 야간개방 맞춰 다양한 공연 펼쳐

7~8월 매주 금요일 시민들을 위해 야간 개방(오후 7~8시)을 실시하고 있는 고종의 잠저(潛邸)이자 흥선대원군의 사가였던 서울종로구 운니동 운현궁 이로당에서는 야간 개방 시간에 맞춰 '금요야간개방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판소리, 전통 무용, 가야금 병창, 대금 산조, 시조, 생황, 전통 창작 타악 외에 클래식, 마술, 팬터마임 등 그동안 궁에서 볼 수 없었던 장르를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766-9090

## 서울숲·보라매공원 한옥·숲속 등 아카펠라·클래식의 밤

여름 밤, 도심 속 숲에서 대중음악, 클래식, 퍼포먼스 등을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도 마련돼 있다. 서울 강북구 번동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에서는 꿈의숲 야외축제인 '구석구석음악회'를 진행한다. 9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6시 북서울꿈의숲 창포원 야외무대에서는 '꿈의숲 야외축제'가, 넷째 주 토요일 6시 북서울꿈의숲 내 한옥인 창녕위궁재사에서 '한옥음악회'가 시민들과 만난다. 이 밖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 야외무대에서는 8월 18일 아카펠라 크로스

오버 보컬인 원달리와 평양민속예술단이, 보라매공원 피크닉장테크에서는 8월 25일 파인스트링의 앙상블과 서울현무용단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에서도 8월 11일과 18일 오후 7시, 서울팝스오케스트라가 꾸미는 서울팝스 숲속음악회를 만나볼 수 있다. 문의 서울숲공원관리사무소 ☎(02)460-2901,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 ☎(02)2181-1195



## 가든파이프 옥상정원·중앙광장 재즈·서머페스티벌

한낮에 뜨거웠던 옥상도 해질녘이면 멋진 공연장으로 변신한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프 테크노관 옥상정원에선 재즈&록페스티벌이 9월 2일까지 첫째·셋째 주 토요일 오후 7시20분~9시에 진행된다. 서울문화재단 문화술프로젝트의 하나인 재즈&록페스티벌은 실력과 뮤지션들이 참여해 감미로운 재즈와 신나는 록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이와 함께 가든파이프 중앙광장에선 8월 말까지 둘째·넷째 주 금~일요일 오후 7~9시 문화술프로젝트 서머페스티벌도 열린다. 동서양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음악을 넘나드는 밴드 We Project의 공연(8월 10일), 각국의 민속 악기를 연주하는 가수 하림과 집시&휘시 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월드뮤직퍼포먼스(8월 12일) 등 다양한 공연이 시민들과 만난다. 문의 ☎(02)2157-8477

## 양재천·난지연못 물가에서 주민이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

시원한 물소리와 어우러진 천변 공연도 빼놓을 수 없다. 서울 서초구 양재1동 양재천수변무대 열린음악회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9시에 진행된다.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공원 난지연못 주변에서도 10월 28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6~7시 듣기 편한 어쿠스틱 음악을 선보이는 인디밴드 '오늘여행자'의 공연이 이어진다. 8월까지 청계천 모전교와 장통교 일대에서도 다양한 거리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서초구 양재천수변무대 ☎(02)2155-7887, 월드컵공원 난지연못 야외무대 ☎(02)300-5574



# ‘일상생활의 친구’ SNS로 소통하세요

### 연예인·정치인 외에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정보 공유하고 인맥 관리

스마트폰이 대세를 이루는 요즘, 소셜네트워크(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일상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 버렸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대표적인 SNS로 10~20대는 물론이고, 30~40대도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사람들의 관심을 먹고사는 연예인과 정치인들도 SNS로 팬이나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SNS는 사용자들끼리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인맥도 관리하는 온라인 서비스다. 가입하면 자신의 페이지가 생기고, 친구를 초대하고 친구로 등록할 수 있다. 내 사진과 글을 수시로 올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이나 사진을 보고 그에 대한 짧은 글을 쓸 수도 있다. 마음에 들면 내 페이지로 퍼 올 수도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 현재 가장 이용자가 많은 SNS는 트위터(www.twitter.com)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이다. 2004년 선보인 페이스북은 전 세계 9억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거대 SNS로 성장했다. 자신의 페이지에 사진과 글을 등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페이스북은 ‘친구’ 중심의 커뮤니티다. 서로 친구 요청을 하고 받아들이면 친구가 되며, 친

## 110콜센터도 SNS로 이용하세요

트위터는 @110callcenter... 페이스북은 110call

정부대표민원전화 110도 SNS로 이용할 수 있다. 110 SNS서비스는 전화 상담과 달리 실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트위터는 @110callcenter로, 페이스북은 110call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스마트폰에서 트위터·페이스북 앱을 열고 각각 위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을 누르면 전화상담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인터넷 화상수화·채팅 상담(www.110.go.kr)도 가능하다. 110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m.110.go.kr)에서도 예약 상담과 문자 상담을 할 수 있다.

구가 올리는 글은 내가 바로 볼 수 있다.

트위터는 하고 싶은 말을 그때그때 짧게 올리는 서비스다. 한 번에 쓸 수 있는 글자 수가 최대 140자로 제한돼 있어서 ‘지저귀다(twitter)’라는 이름을 가졌다. 회원으로 가입한 뒤 원하는 사람과 친구를 맺으면 그 사람이 올리는 글을 볼 수 있다. 상대방이 친구 요청을 허락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페이스북과 다르다.

**토종 SNS** | 싸이월드(www.cyworld.com)는 한국에서 크게 성공한 SNS다. 개인홈페이지 서비스를 기반으로 친구맺기, 선물하기 등의 서비스로 큰 인기를 끌어 왔다. 최근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밀리고 있지만, 국내 회원이 26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SNS다.

미투데이(www.me2day.net) 역시 대표적인 토종 SNS다. 한국판 트위터로 불리기도 한다. 차이가 있다면 최대 150자까지 쓸 수 있다는 것과 상대가 허락해야 친구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올라온 글에 대해 ‘미투’를 눌러 공감을 표시할 수 있다.

SNS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원터치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권세진 기자



# 한국은 단일민족 아닌 다문화사회!



화산군 리용상  
박순교 지음 | 생각나눔  
272쪽 | 1만2,500원

화산 이씨(花山 李氏)는 13세기 대월국(大越國·지금의 베트남)에서 건너온 이룡상(李龍祥)을 시조로 한다. 교통이 지금과 같지 않던 그 옛날, 이룡상은 어떤 연유에서 머나먼 남쪽나라에서 고려까지 흘러들어 이 땅에서 일가(一家)를 이루게 되었을까?

이 책은 그 궁금증을 풀어가는 팩션(역사적 사실(fact)을 바탕으로 가공의 이야기(fiction)를 덧붙인 문학장르)이다. 저자는 <산군본전> 등 화산 이씨 가문의 기록은 물론 <대월사기> 등 역사서를 바탕으로, 혼란으로 점철된 13세기 아시아의 역사와 그 속에서 고난의 일생을 살다 간 이룡상의 일생을 되살린다.

## 13세기 베트남서 건너온 ‘화산 이씨’의 시조

이룡상은 대월국 이씨 황조의 7대 황제인 고종 이룡의 동생. 당시 대월국은 잇단 내전과 권신 두씨와 진씨의 전횡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대월국 황실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음모와 배신은 마치 TV사극을 보는 듯하다. 영종이니 고종이니 하는 임금의 묘호, 진수도·이룡상 같은 인명, 하내(河內·하노이)와 같은 지명은 베트남이 멀지만 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한자문화권의 나라임을 새삼 느끼게 해 준다.

결국 권신 진씨 일족은 찬탈의 수순을 밟기 시작한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고국을 등진 이룡상은 남송(南宋)과 금(金)을 떠돈다. 동란의 시대를 만나 어디서도 평안을 얻지 못한 그는 산속

에 숨어 조용히 사는 삶을 꿈꾸며 고려로 향한다. 하지만 고려도 이 작은 소망을 들어 줄 수 있는 땅은 아니었다. 고려 역시 권신 최우의 전횡과 몽골의 거듭되는 침략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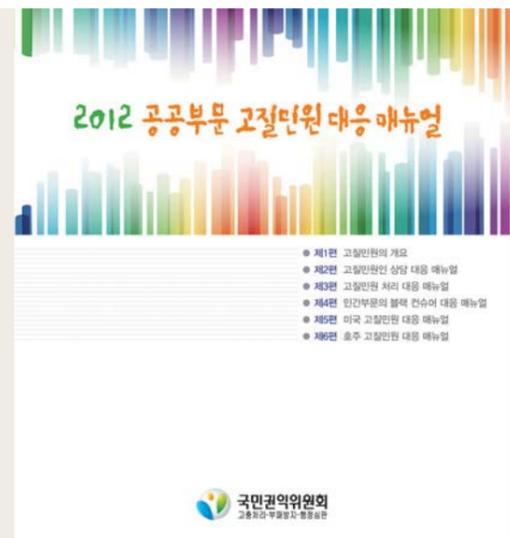
황해도 웅진 땅에 정착한 이룡상은 주민들을 모아 몽골의 침략군을 수차 격퇴한다. 고려 임금 고종은 이룡상을 중용하려 하지만, 최우는 이룡상을 시기한다. 결국 이룡상은 최우의 음모로 이역 땅에서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감한다. 고종은 뒤늦게 그를 화산군으로 추증해 그의 넋을 기린다.

우리는 흔히 ‘단군의 핏줄을 이은 단일민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이야기가 그야말로 신화(神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 준다.

어디 화산 이씨 뿐이라? 덕수 장씨는 고려 충렬왕 때 원나라 제국대장공주를 따라 들어온 위구르인 장순룡의 후예고, 우록 김씨는 임진왜란 때 투항한 왜장 사야가의 후손이다. 김해 허씨는 인도 아우타에서 건너온 허황옥의 후예다. 심지어 경주 김씨가 흥노의 후예라는 주장까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주변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을 좀 더 너그러운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책 속에 그려진 어지러운 정치와 외침에 고통 받는 민초들의 삶을 보면서, ‘국가’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했다. 결국 소외받는 국민을 보듬어 안아 주는 것이 나라의 존재 이유 아닐까? 글·배진영 기자

고질민원에 대해 능동적 대처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최초로 '대응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행정기관에 보급했다. 또한 교육에 대한 국민들이 의견을 폭넓게 듣는 교육정책 토론회를 온라인 상에서 진행하고 있다. 글·권세진 기자



### ‘고질민원 대응매뉴얼’ 공공기관에 보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최초로 '공공부문 고질민원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만들어 7월 초 각급 행정기관에 보급했다.

이번에 발간된 대응매뉴얼은 권익위가 작년 7월부터 '고질민원 특별조사팀'을 창설해 민원처리를 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일선 민원현장 공무원과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졌다.

매뉴얼은 나체노출 시위와 자기주장 반복 등 29개 고질민원인의 유형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알려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형에 따라 ▲수치심에 호소한다 ▲공감을 표시한다 ▲논리를 지적한다 등 방안을 제시, 차분하게 적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불만 민원일수록 내내심을 갖고 끝까지 경청하면서 여러 대안을 모색해 좀 더 능동적으로 처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권익위는 "민원분석 결과 60% 이상이 공직자의 초기단계 대응 소홀로 인해 고질민원으로 변환된 것으로 나타났고, 고질민원 처리에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큰 만큼 공직자의 효과적인 초기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국민신문고, 게임 등 온라인 콘텐츠 민원도 처리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이 각종 콘텐츠 이용과 거래에 관련된 민원을 어디에 제출하든 관계없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소관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바로 배정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하였다.

그동안 민원인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을 다른 기관에 신청할 경우, 그 기관에서 공문서를 작성해 진흥원으로 이송하고 민원 원본서류 등은 우편으로 별도 송부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민원인 역시 민원을 이송받은 소관 부처나 담당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일이 전화로 확인하는 등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했다.

이번 연계를 통해 온라인 게임,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이용·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국민신문고 시스템상에서 소관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즉시 이송하고 진흥원 내의 전문 조정기구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게 되며, 민원인은 이러한 처리과정과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제8기 블로거기자단 20명 공식 출범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할 제8기 블로거 기자단이 구성됐다. 기자단은 현장취재와 스케치, 인터뷰 등의 취재와 기사작성을 맡게 되며 블로그에 게시할 포스트를 기획, 제작하게 된다. 블로거 기자단은 국민권익위원회 SNS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SNS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제8기 블로거 기자단은 7월 6일 서울 미군동 국민권익위원회 신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향후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다. 다음은 제8기 블로거 기자단 명단.

- 취재기자**  
김강부 김경희 김민정 김서용 김여명 김정아 박세정 박재현 양준희 이영호 이종현 정한울 최유정 최윤호 최은석 한지영 홍남희
- 웹툰기자**  
강대영 양은순 정자남

**이슈**  
국민권익위원회-한국교육개발원 공동 기획토론  
5년지소계? 100년지대계!  
**한국 교육 미래를 말하다**

한국 교육의 장밋빛 미래, 함께 고민하면 가능합니다!  
토론 결과는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정책수립 등에 활용됩니다.

**인사말**

김영란 권익위원장 | 이주호 교과부장관 |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장

**고졸취업, 학력이 문제인가, 인식이 문제인가**  
고졸 직장이든 담당하게 될 수 있는 사회! 바람직한 진로 교육과 고졸취업 방안을 통해 찾아봅시다.  
토론방 바로가기

**주5일 수업제, 토요일 어떻게 보낼까**  
부모와 자녀, 학교가 행복한 토요일! 주5일 수업제의 성공적인 정착 방안을 찾아봅시다.  
토론방 바로가기

**영유아 보육 교육, 국가는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가**  
토론방 바로가기

### 권익위·한국교육개발원 공동, 교육정책 온라인 대토론회 진행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교육정책 대토론회를 진행한다. 권익위가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7월 9일부터 온라인으로 열고 있는 대토론회에서 국민들은 교육정책에 대해 가져 왔던 생각들을 마음껏 내놓을 수 있다.

토론회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다음아고라(agora.media.daum.net)에서 열리며, 자유롭게 개진한 의견은 총리실, 유관부처 등에 제공되고 제도개선, 정책수립 등에 활용된다.

토론 안건은 최근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준 교육 관련 이슈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그간 실시된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과 민간포털 토론방 등에서 뜨겁게 논란이 되었던 이슈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국민들은 진로교육·고졸취업 확대를 통한 고교교육 완결성 제고, 주5일 수업 실태 및 해결방안 모색 등 4가지 주요 안건에 대해 별도로 마련된 토론방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우수 공공기관 '청렴 선도 클럽' 창립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매우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과 우수시책을 시행하는 기관들이 모여 '청렴 선도 클럽(CC Club)'을 창립했다.

창립멤버는 한국공항공사와 관세청, 한국수자원공사 3곳이다. 한국공항공사는 기관 청렴도가 최근 3년간 1등급(매우우수)이면서 지난해 반부패 시책평가 1등급을 달성해 청렴선도기관으로 선정됐고, 관세청은 최근 2년간 청렴도와 반부패 시책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반부패 및 청렴시책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성공적으로 추진, 청렴선도시책 추진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능형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을 통해 부패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해당 기관들은 7월 12일 미군동 소재 권익위 대강당에서 창립식을 개최했다. 앞으로 이들 청렴선도클럽 참여기관들은 청렴포럼과 함께 각종 정책회



의에 참여하는 등 권익위가 추진하는 청렴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성공사례를 전국 공공기관과 사회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등 공공기관 및 국가청렴도 제고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등을 엽서에 적어 보내 주세요. 엽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퀴즈 정답을 보내 주시는 분들 중 다섯 분을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응모 마감 8월 30일).



##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조정회의 현장 르포를 보며 김영란 위원장님이 직접 민원현장에 나가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려 애쓰는 모습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제해결의 결과보다 민원인의 고충과 얽힌 감정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이해하려 애쓰는 모습에 농민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피해 보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권익위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조정선·전남 곡성군 석곡면)

‘역사속 권익’을 통해 옛날 청백리들의 모습을 접할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당시 청백리들의 모습과 현재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며 반성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건강 다이어리’는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는 유익한 코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뀌는 제도나 신설되는 제도 등은 국민들에게 더 쉽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만화나 이야기 등으로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세라·인천 연수구 연수동)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를 통해 모호하면서도 이해가 잘 안되는 사안들을 분명하게 알게 돼 도움이 됐습니다. 국민불편과 관련한 민원들을 명쾌하게 해결해 줘 민원인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특히 사소한 단순과실범죄로 나라를 위해 희생했 으면서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었던 안타까움을 해결해 줘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지하·서울 강동구 길동)

### 지난 호 퍼즐 정답

	1	2			
	준	법			
3	소		4	무	사 안 일
6	통	7	도	사	자
		편		8	청 백 리
	10	수	11	신	혈
		12	비	상	구

5+6월호를 읽고 82명의 독자분이 엽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정회의 현장에서 보여준 권익위의 활발한 활동이 인상적이었다는 의견과 역사속 권익이야기가 유익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여수엑스포와 관련한 여수 여행 기사가 흥미로웠다든 평가도 많은 분이 내려 주셨습니다. 독자분들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국민 권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호 퍼즐 정답자와 의견 채택된 분**  
 김수미(인천 부평구) 조석(경기 의정부시) 이기안(대전 서구) 길필순(부산 북구) 김수훈(대전 중구)

### P U Z Z L E

	1		2		3
	4				
5				6	
		7			
8					

#### 가로

- 병영 안에서 사병들이 생활하는 방. “국방부는 사병들의 병영생활 개선을 위해 입대 동기끼리 000 생활을 하는 ‘동기생활관’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 명령을 하는 듯한 말투. 듣는 사람이 좋지 않죠.
- 원망하는 소리.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시민들의 00이 자자했다.”
- 창과 00.
- 부부의 한쪽. 남편이나 아내.
- 싱글로서 단추가 셔터 게 달린, 꺼입게 된 외투. 봄이나 가을에 입는 가벼운 외투.

#### 세로

- 맑고 깨끗하고 분명한 정도. 청렴도. ‘국제000기구.’
- 아내가 남편을 돕는 것.
- 관리나 공무원 등의 부패에 반대함.
- 민원 등 모든 과정을 한번에 해결한다는 뜻. ‘국민신문고 민원 000 서비스.’
- 춘향전에 나오는 인물. 이몽룡 도령과 이 사람.
- 미국의 만화책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 박쥐, 망토, 악당과 싸움, 영화...



### 우리집 전기절약 체크리스트

#### 평상시 필수사항

- 에어컨 등 전기냉방기기의 사용은 자제합니다.  체크
- 사용시간 외 TV, 컴퓨터, 충전기 등의 플러그는 뽑습니다.  체크
- 실내온도는 26℃ 이상으로 유지합니다.  체크
- 사용하지 않는 곳의 조명은 완전 소등합니다.  체크
- 여름철 전력피크시간대(오후 2 ~ 5시)에는 전기사용을 최대한 자제합니다.  체크

#### 비상시 대응요령

- 전기냉방기기의 사용을 중지합니다.
- 다리미, 청소기, 세탁기, 전자렌지, 식기세척기, 헤어드라이기의 사용을 중지합니다.
- 재난상황파악을 위한 TV, 라디오를 제외한 가전기기의 사용을 중지합니다.
-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방의 조명등을 모두 끕니다.

#### 평상시 권장사항

- 실내냉방기기 온도는 한 단계 낮게(강▶약) 설정합니다.  체크
- 세탁기는 한 번에 모아서 사용합니다.  체크
- 식기세척기는 가득 찰 때만 사용합니다.  체크
- 전기밥솥 대신 압력솥을 이용합니다. (전력사용▶가스사용)  체크
- 전기밥솥은 장시간 보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체크
- TV·컴퓨터 사용시간을 줄이고, 반드시 셋톱박스의 전원을 끕니다.  체크
- 컴퓨터는 절전모드를 설정하여 사용합니다.  체크
- 청소기는 한 단계 낮게(강▶중) 조절하여 사용합니다.  체크
- 냉장고의 음식물은 60%만 넣어 냉기순환이 잘되게 합니다.  체크
- 냉장고는 벽과 거리를 두고, 뒷면 방열판을 주기적으로 청소합니다.  체크
- 인원수에 적합한 용량 및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합니다.  체크
- 백열등은 형광등, LED조명 등 고효율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체크